

9일 Market Index			
↓ 코스피	2360.58	↓ 코스닥	627.01
	(-67.58)		(-34.32)
↓ 금리 (연이자율)	2.579	↑ 환율 (원/달러)	1433.60
	(-0.041)		(+14.40)

# metro 경제

현직 대통령  
사상 첫 출국 금지  
02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02)721-9841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매일 아침, 나를 키우는 메트로 2024년 12월 10일 화요일

경기침체·트럼프·탄핵정국 ‘삼중고’

## 재계, 비상태세 돌입... 국내외 사업계획 전면 재검토

우리 경제를 이끌고 있는 국내 주요 기업들이 비상대응 태세에 돌입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와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2025년 1월 20일)에 따른 통상 환경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게임 및 탄핵 정국까지 이어지면 진퇴양난에 빠진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재계는 조만간 국내외 전략회의를 통해 내년 사업 방향성과 위기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2·3·4·6면〉

9일 재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불려온 탄핵소추 정국 사태 여파로 한국의 대외 신인도가 하락하고 있다. 특히 환율이 빠르게 치솟으면서 국내 산업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경기 침체 속 ‘트럼프 2기’ 출범  
비상계엄 사태로 환율 급등까지  
산업계, 정책지원 공백 우려 확산

삼성·LG·현대차, 전략회의 준비  
통신·배터리, 리스크 관리 강화

재계는 환율 상승과 함께 정부 정책 지원 공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특히 재계는 트럼프 2기가 반도체법(칩스법),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에 따른 해외 기업 보조금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만큼 기업들의 대관뿐만 아니라 정부의 외교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지만 현재 미국은 냉랭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될 수 있다는 위기감도 확산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업종등으로 인해 전사적인 영향은 받을 것”이라며 “주요인 반도체 사업이 환율 영향을 크게 받는 만큼 계약명 탄핵 쇼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단기간 환율상승은 반도체 수출 호재로 작용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기업 전체에 악재가 될 것”이라며 “원자재 값 등 변동성이 확대되면 해외 설비 투자 방향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일단 환율 등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실질적인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며 “대응 매뉴얼을 통해 침착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통신업계는 “탄핵 정국으로 이어지면서 관련 이슈 발생마다 트래픽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이동기지를 추가 개통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면서 “정보통신업계 최대 현안인 AI 기본법과 단통법 폐지의 국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향후 사업 전략에도 차질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배터리업계는 “이차전지의 해외 사업 비중이 90%에 달하는 만큼 환율 상승 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환율 급변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 체계를 마련해두고 있다”며 “트럼프 당선으로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정치의 불안정이 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철강업계는 “중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등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행정 공백이 발생할 경우 업계 부담은 커질 것”이라며 “특히 철강업계 특성상 정책적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 사태로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IT 스타트업 관계자는 “탄핵소추안 처리 불발로 불확실성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법안 처리 지연에 따른 투자 심리 위축이 가장 큰 문제”라며 “기업 리스크가 불투명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현재 투자가 줄어들고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재계는 국내외 전략회의를 통해 내년 사업 방향성과 위기대응에 나선다. 삼성전자는 이달 중순 글로벌 경영전략회의를 열고 각 사업부별 미래 전략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회의는 한종희 DX 부문장(부회장)과 전영현 DS 부문장(부회장)이 각각 부문별로 주재한다. DS부문에서는 이번 인사에서 새 미주총괄(DSA)로 선임된 조상연 부사장 등이 참석해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른 현지 반도체 전략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글로벌 전략회의를 통해 근원적 경쟁력 회복 방안과 내년 사업 목표를 공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매분기마다 한 번씩 사장단 협의회를 개최하는 LG그룹도 이달 중순에 구광모 LG 그룹 회장 주재로 사장단 협의회를 열고 미래사업 역량 확보와 성장 기반 구축 방안을 모색한다.

구 회장은 지난 9월 사장단 워크숍에서 “기존에 해오던 방식을 넘어 최고, 최초의 도전적인 목표를 세워 LG의 미래에 기록될 역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현대차그룹은 다음주 중 해외 권역본부장회의를 열고 각 권역별 사업계획을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현대차그룹은 상·하반기 한 차례씩 미주, 유럽, 인도 등 해외 권역 본부장들을 국내로 불러 회의를 연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장재훈 현대차 사장, 호승성 기아 사장, 호세 무뇨스 현대차 글로벌 최고운영책임자(COO) 등 핵심 경영진들이 모두 참여해 국내외 사업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방향타’ 잃은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후 한국 사회에 혼란이 몰아치고 있다. 윤 대통령은 9일에도 공식 일정 수행이나 입장 발표를 하지 않은 채 사실상 침묵 상태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의 침묵 속에 대통령실도 방향타를 상실해 뒤숭숭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정 과제와 현안 등에 대한 브리핑이나 언론 공지 등은 뜸 끊긴 상태다. 사진은 대통령실 외경. /뉴시스

## 정국 불안 장기화 우려... 원화·주가 급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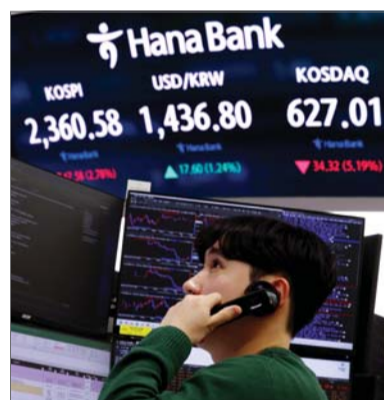
코스피·코스닥 시장 패닉셀  
주식 종목 절반 52주 신저가  
환율도 26개월만에 최고수준

탄핵 정국 장기화 전망에 주식과 원화값이 급락했다. 채권값도 하락해 트리플 약세 현상이 나타났다.

9일 주식시장에선 패닉셀(공포 매도)이 뚜렷했다. 개인투자자 투매로 코스피 지수가 67.58포인트(2.78%) 하락한 2360.58에 마감했다. 코스닥지수도 34.32포인트(5.19%)나 급락한 627.01에 장을 마쳤다. 모두 52주 최저가다. 주식시장에선 2631개 종목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287개 종목이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 코스닥지수가 5% 이상 급락하고, 코스피가 2400선을 밀든 것은 지난 8월 5일 ‘블랙 먼데이’ 사태(미국의 경기침체 우려 등) 이후 처음이다.

전문가들은 주식과 환율 모두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탄핵소추안 불발 이후 정국 불안정성이 급증하면서 윤석열정부 핵심 정책 실행 동력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다”며 “비상계엄 사태 이후 4거래일째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



코스피가 전 거래일(2428.16)보다 67.58포인트(2.78%) 내린 2360.58에 마감한 9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뉴시스

명했다.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437원에 오후 거래(오후 3시 30분 종가)를 마쳤다. 이는 전일보다 17.80원(1.25%) 급등(원화 가치 급락)한 것으로, 지난 2022년 10월 이후 26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이번 원·달러 환율 상승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계엄 선포와 이로 인한 탄핵 정국 장기화 전망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이다.

앞서 원·달러 환율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계엄 선포 직후 달러당 1444.7원까지 가파르게 상승했다. 이후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소식이 전해지자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했지만, 지난 7일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무산되면서 정치적 혼란이 장기화할 전망이 나오자 재상승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탄핵 정국이 장기화할 전망이 나오는 만큼 원화 약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관측했다.

이주원 대신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원·달러 환율은 국내 정치 불안이 확대되며 급등세를 기록했다”며 “정치 불확실성이 완화되기 전까지 환율은 높은 레벨에서 변동성이 큰 모습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주식시장에선 개인투자자의 투매 현상이 나타났다. 코스피시장에서만 8896억원 어치나 팔았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3019억원의 순매도를 나타냈다. 다행히 기관과 외국인이 사자에 나서 추가 하락을 방어했다. 외국인은 코스피시장에서 1010억원, 코스닥시장에서 2049억원의 순매수를 기록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기존 정권의 정책 추진력 약화가 예상되자 연초 이후 상승세가 가팔랐던 금융주 중심의 차익 실현 매물출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방산, 원전 등 현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정책 업종들도 하락세다”라고 설명했다. /안승진·원관희 기자 asj1231@

###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한덕수 국무총리 “헌법·법률 따라 국정 안정 전념” /사진 뉴시스  
▲ 최상목, 주한日대사 만나 우려 불식... “긴급 대응체계 안정적 작동”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尹대통령 긴급 체포-압수수색 요건 검토”  
▲ 홍준표 대구시장 “尹, 하야 대책 내보라” 촉구



▲ ‘뇌물·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민주 신영대 의원 불구속 기소 /사진 뉴시스  
▲尹 지지율,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7.7%p 급락... 취임 후 첫 10%대

# 현직 대통령 사상 첫 출국금지... 비상계엄 수사 속도낸다

공수처, 법무부에 출국금지 신청  
검찰 특수본, 방첩사 압수수색  
경찰 국수본, 150명 수사관 투입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우중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수사 상황과 관련 브리핑 하고 있다. /뉴스1

법무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출국을 금지했다. 현직 대통령이 출국 금지 조치되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 신청을 수사관들에게 지시했는데,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경찰도 비상계엄 사태 관련 피의자로 입건한 윤 대통령에 대해 출국 금지를 검토 중이었다.

법무부는 9일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출국금지 신청을 받아 승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 신청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지금 이행은 안 됐지만 수사관들에게 지휘를 했다”고 말했다.

다. 공수처는 현재, 윤 대통령 등의 직권남용과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이다.

경찰도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검토 중이었다.

우중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비상계엄 특별수사단장)은 이날 서대문 경찰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포함) 수사 대상에는 인적·물적 제한이

없다”며 “실제 출국 가능성도 있고,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도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 단장은 “이번 수사를 둘러싼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수본은 내란죄의 수사 주체로서 무겁게 책임감을 느낀다”며 “특수단을 중심으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 국수본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도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내란죄로 고발된 상황에 대해서도 “경찰법상 경찰청장은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권이 없다”며 수사 독립성을 강조했다. 경찰청장에게 이 사건과 관련한 일체의 보고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국수본은 비상계엄 발령 관련 의사결정 과정, 국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피해 상황과 경찰 조치 등도 면밀하게 수사 중이다. 또, 포렌식 등 압수물 분석과 통화내역 분석 등을 통해 혐의 내용 입증에 주력할 방침이다.

현재 경찰은 특수단에 150여명의 수사관을 투입했다.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포함해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 서울청 광역수사단 소속 수사관도 추가 투입됐다.

아울러,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비상계엄 사태 관련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검찰 특수본에 따르면 이번 압수수색 영장은 군검찰이 군사법원으로 부터 직권남용, 내란, 반란 등의 혐의로 발부받았다. 압수수색 대상에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간부들의 집무실과 공관, 서울 용산구 등 전국 방첩사 사무실 상당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방첩사는 비상계엄을 앞두고 사전 계획 문건을 검토하고 포고령을 작성하는 등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여 전 방첩사령관이 국회·중앙선관위에 체포조 투입을 지시했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 특수본은 여 전 사령관에게 10일 출석을 통보했다.

특수본은 여 전 사령관을 일단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비상계엄 사태를 전후해 김 전 국방부 장관 또는 윤 대통령과 공모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원승일 기자 won@metroseoul.co.kr

# 국민의힘, 원내대표 교체 절차... 14일 탄핵안 표결 미정

오는 12일 신임 원내대표 선출 예정  
일부 의원들 탄핵안 표결 참여 목소리

국민의힘이 9일 의원총회를 열고, 최근 원내대표에서 사퇴 의사를 표명한 추경호 의원을 대신할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9일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공고를 올리고 10일 오전 9시부터 후보를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오는 12일에 선출될 예정이다. 새로운 원내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배준영 원내수석이 역할을 대신

한다.

이날 국민의힘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은 회동을 갖고, 추 원내대표를 재추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모았지만, 의총 끝에 신임 원내대표를 뽑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석 여부는 결정하지 못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오늘 의총에서 결론이 난 것이 아니다. 의총이 계속 있을 예정”이라며 “본회의가 잡히고 표결 전에 결정될 것 같다. 오늘은 여러가지 의원님들의 제안이 나왔다고 했다.

의총에서는 탄핵안 표결에 불참한 것

에 대한 의원들의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친한(친한 동헌계)을 중심으로 2차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는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다.

다만, 국민의힘 중진 윤상현 의원은 의총 중간에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탄핵에 반대하는 것은 윤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체제와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대통령 탄핵을 바로 단행함으로써, 대한민국 체제를 탄핵시킴으로써 체제를 무너뜨리는 우를 범하지 말자”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언급하며 “이 대표의 혐의를 보아라. 12개 혐의에 5개 재판”이라며 “여의도 대통령령을 하고 있다. 우리 스스로 민주당에 밀려가야 하나”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질서있는 퇴진을 위해 정국안정화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다. 정국안정화TF는 단장에 이양수 의원을, 위원에는 정희용·박수민·서지영·안상훈·김소희 의원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양수 정국안정화TF 단장은 “당이 어려운 상황이다. 어떻게 하면 당을 빨리 추스려서 조기에 정국을 안정시킬 수 있을까하는 문제에 대

해 당장 회의를 통해서 여러 사안들을 점검하고 결정해 당에 보고하고 국민께 보고하는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당분간 거의 매일 모여서 회의한다고 보시면 될 거 같다”며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까지 (TF를)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대통령 임기 단축 및 조기 퇴진,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대표의 공동 담화문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며 “TF 목표 자체가 정국을 조기에 안정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주체나 여러가지 제한이 없는 걸로 안다”면서 “저희가 결정한다고 그게 바로 실행에 옮겨지기는 어려운 것으로 본다. TF라는 건 실무 기구라 당 지도부에서 최종 판단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미래에도  
걱정 없이  
받을 수 있고



모든  
세대가  
고르게  
누리며



국민과  
함께  
개혁  
합니다



노후를  
 든든히  
할 수  
있도록



믿음직한 내일을 향한,  
국민과 함께하는  
연금개혁

더 믿음직한 내일

# 국민연금




2024년 TVCF 분야기

# 재초환 폐지법 논의 난망... 1기 신도시 재건축 '적신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재건축 특례법 표류 가능성 주택공급 활성화 정책 영향 "신규사업 위해선 규제완화 필요"

계엄 사태와 이에 따른 탄핵 정국으로 국정이 사실상 마비되면서 부동산 정책에도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주택 공급 활성화 등을 위해 내놓은 정책의 대부분은 법안 통과가 필요한 상황이다. 기존에도 야당이 반대했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이하 재초환)와 임대차2법(2+2년 갱신계약·전월세상한제), 공시가율 현실화 등의 폐지는 물론 여야가 공감대를 가졌던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이하 재건축 특례법)도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최대 3년 단축 등을 골자로 하는 재건축 특례법이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있다.

계엄 사태 이전인 지난달 세 차례

## 부동산 정책 중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

주요 정책	내용
재건축재개발 특례법 제정	도시정비사업 기간 3년 단축 및 용적률 한시적 상향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재건축 부담금 완화
임대차2법 폐지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 상한제 폐지
실거주의무 폐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신축단지 의무 거주기간 폐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	공시가격을 2035년까지 시세의 90%로 상향하는 계획 폐기
다주택자 세금규제 완화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증가 등 징벌적 세제 폐지

회의가 열렸지만 통과는 보류됐다. 여야 모두 정비사업을 촉진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동의했지만 특례법으로 가야하는지에 이견이 있었고, 세부적인 조문 내용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재건축 특례법은 정부가 내놓은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핵심법안이다. 정비사업의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허가 관리로 추진 과정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원래대로라면 지난주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가 되어야 했지만 향후 일정이 불확실해졌다.

야당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던 규제 완화 법안들의 경우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재초환 폐지법 역시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재초환은 재건축 사업으로 얻는 이익의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정부가 올해 초 하위법령을 고쳐 1주택자나 고령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했지만 여전히 재건축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걸림돌

로 꼽힌다. 특히 재초환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윤석열정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했던 1기 신도시 재건축 역시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정부는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등 1기 신도시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을 추진하는 선도지구 13곳을 지난달 선정해 총 3만6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초 법 제정 취지는 주택시장 안정이었지만 그와 달리 조합원들의 부담과 함께 주택공급 위축의 요인이 되고 있다"며 "이런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이제 제도 폐지를 검토할 때가 오지 않았나 싶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폐지를 내걸었던 임대차2법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임대차 2법은 전세 '2+2년 계약'을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인상을 연 5%로 제한한 전월세 상한제다. 4년 마다 임대료가 크게 뛰는 등 당초 취지와 달리 주택 임대차 시장에 혼란을 가져왔다. 임대차2법 폐지가 아니라 오히려 계약갱신청구권을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는 개정안이 야당에서 발의된 상황이다.

이밖에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와 다주택자 세금규제 완화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선미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은 "높아진 공시가격으로 인해 사업성이 낮아진 만큼 신규사업을 재개하기 위해선 규제완화가 필수"라며 "정책 시행이 늦어질수록 주택공급 불안정성이 높아질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 'AI 기본법' 연내 제정 불투명... 산업동력 상실 위기

정국혼란에 법안 지연 처리 가능성 산업계 "글로벌 경쟁 뒤쳐질 수 있어"

'비상계엄 사태'로 정국이 혼란에 빠지면서,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도 표류할 위기에 놓였다. 글로벌 AI 패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핵심 법안이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국 AI 산업 경쟁력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AI 기본법을 포함한 주요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9일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서 'AI 기본법'은 상정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날 법사위 회의에서는 비상계엄령과

관련된 '내란의혹 특검수사요구안'이 논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AI 기본법의 법사위 및 본회의 통과가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AI 기본법은 법사위에서 심사를 거쳐야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기 때문에, 법사위의 심사가 지연되면 본회의 통과 역시 미뤄질 수밖에 없다.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의 숙원사업인 AI 기본법은 AI 산업의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핵심 법안으로, ▲AI 기술의 책임성 ▲데이터 윤리 ▲개인정보보호 등 주요 쟁점을 다룬다. AI의 사회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기술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와 개인정보 보호를 규율하기 위해 필수적인 법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회 과방위는 AI 기본법 통과와 함께 내년도 예산에 AI 관련 예산을 정부안 대비 1조원 이상 증액하며, AI 인프라 구축 및 기술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법안 통과가 지연되면 법적 근거가 미비해 예산 집행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

AI 기본법의 표류 가능성이 커지면서 산업계의 불안도 고조되고 있다. ICT 업계의 한 관계자는 "향후 1~2년이 AI 산업의 '골든타임'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이 시기를 놓치면 글로벌 AI 선진국들과의 격차를 좁히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한국의 법안 지연은 국제 AI 패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더 큰 위기로 작용할 수 있다. 유럽연합(EU)은 지난 8월 'AI법(AI Act)'을 최종 마무

리하며 글로벌 규제 표준 선점에 나섰다. 미국과 일본도 AI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와 법·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반면, 한국은 정치적 리스크로 AI 관련 법·제도 정비가 지연되면서 글로벌 경쟁에서 뒤쳐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미 글로벌 AI 경쟁력 지표에서도 그 위험성이 드러나고 있다. 토터스미디어의 '글로벌 AI 인덱스 2024'에 따르면 한국의 AI 경쟁력은 세계 6위를 기록했으나, '운영환경' 부문은 지난해 11위에서 35위로 급락했다. 운영환경 경쟁력은 기업들이 AI 기술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평가하는 지표로, 규제와 법적 인프라가 크게 영향을 미친다.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센터장은 최근 국회 포럼에서 "AI 기본법을 포함한 과학기술 관련 법안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과방위를 과학기술과 방송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적 혼란이 과방위 업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정치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법안 처리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업계 전문가들도 법안 통과 지연이 산업의 성장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AI 기반의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가 출시된 이후 뒤늦게 규제가 생기면, 기존 사업이 중단되거나 전면 재조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관계자는 "기업의 신사업 추진을 가로막고, 글로벌 경쟁에서도 뒤쳐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혜민 기자 hyem@

# 김병환 "10조 증안펀드 등 금융정책 일관되게 추진"

(금융위원장)

금융위 금융상황 점검회의 금융지주사 유동성·건전성 강조

"금융지주사는 대외신인도 측면에서 최전방에 있다. 외국계 금융사·투자자 등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각 지주사의 안정성은 물론 우리 금융시스템의 회복력에 대해서도 적극 소통해달라."

대외신인도는 국가신용도와 같은 의미로, 국가의 채무 이행 능력과 의사수준을 표시한 등급이다. 대외신인도가 떨어지면 외국으로부터 달러를 차입하기 어려워진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9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5대 금융지주회장과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탄핵 소추안은 지난 7일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아 무효화됐다. 대통령이 물러나는 하야를 택하거나 탄핵 소추안이 재발의, 가결되더라도 3개월 이상 걸릴 예정이어서 정치적 불확실성은 경제 불확실성으로 확대된 상태다.

이날 오후 2시53분 기준 코스피지수는 60포인트 이상, 코스닥지수는 32포인트 이상 하락한 채 거래됐다.

김 위원장은 금융지주사의 유동성과 건전성을 다시 한 번 점검해달라고 덧붙였다.

그는 "금융지주사는 그간 위기시마다 높은 건전성을 바탕으로 금융안정에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며 "금융지주사의 유동성과 건전성을 점검하고, 기업

등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자금운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대외신인도 유지를 위해 흔들림 없이 주어진 책무를 추진해 나간다.

우선 금융시장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 하면서 10조원 규모의 증안펀드, 40조원 규모의 채안펀드와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예컨대 우리나라 기업들이 자금이 필요해 회사채를 발행할 경우 국가의 정치적 상황이 반영돼 금리가 높아지거나, 투자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해 정부가 회사채를 매입, 안정감있게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정책 현안도 당초 계획에 따라



김병환 금융위원장(가운데)이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일관되게 추진한다.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조치,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한 시스템 구축, 인터넷전문은행 추가인가 등 기존에 발표한 정책을 진행한다. 12월 중 발표하기로 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금융부담 완화방안과 실손보험 개혁 등도 추진한다.

김 위원장은 "금융이 안정적으로 제 역할을 하는 한 우리 경제는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며 "시장안정 조치를 적기에 시행하고, 금융정책 현안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115@

‘탄핵정국’... 교수가 본 중소·벤처기업 정책방향

AI등 활용해 기업 경쟁력 제고 절실  
지방에 中企벤처 DX·AX 돕는  
지원센터 구축·예산 투입

수출 초보기업 어려움 더욱 커질 것  
RG, 신용장 발급 적극 지원해  
기업들 피해 최소화해야

미국 트럼프 행정부, 관세는 수단일 뿐  
정부내 통상전문가들 머리 맞대  
대응책 신속 마련하길

대기업 어려움 中企로 전이  
규제 완화, 정책 자금 확대 등에 더해  
내수 진작 추가 방안 마련 필요



주영섭 서울대학교 특임교수

임채운 서강대학교 명예교수

오동윤 동아대학교 교수

윤병섭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수

# 中企·벤처 위기... 해법은 ‘디지털 혁신·정책 리더십’

## 흔들리는 수출 동력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이 위기를 맞는 등 세계 제로다.

가뜩이나 코로나 팬데믹 이후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고환율·고물가·고금리를 중심으로 한 ‘3고’에 더해 내수 침체까지 겹치며 갈광질광하고 있는 현실에서 대통령 비상계엄령 발동과 해제 그리고 탄핵 표결 등 국내 정세가 거대한 소용돌이에 휩싸이면서다.

정치가 갈길 바쁜 경제를 송두리째 집어삼키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국내 이슈 탓에 대외신인도 하락, 해외 거래처 이탈 등으로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 경제 입장에서 적지 않은 기간 고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고환율·고금리·고물가, 내수 침체 비상계엄 → 탄핵 표결 ‘정국 요동’ 대외신인도 하락 등 수출 ‘빨간불’ 미국 ‘트럼프 2기’ 출범 대응 필요

메트로경제는 중소기업청장을 역임한 주영섭 서울대 특임교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거친 임채운 서강대 명예교수,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을 맡았던 오동윤 동아대 교수, 가족기업학회 회장인 윤병섭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수로부터 엄중한 시기에 우리 경제의 디딤돌인 중소·벤처기업 정책 방향을 9일 들어봤다.

## ◆내수보다 수출이 더 걱정... ‘트럼프 2기’ 대응도 총력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중소기업 수출은 845억6000만 달러로 동기 기준 지난 2022년의 868억 달러에 이어 역대 2위를 기록했다. 3분기만 놓고 보면 중소기업 수출액은 285억 달러로 올해가 가장 많다.

또 1~3분기 누계 기준 수출 중소기업 숫자도 8만6877개사로 역대 1위에 올랐다. 화장품, 자동차, 플라스틱, 자동차부품, 반도체제조용장비 등이 3분기 수출을 견인했다. 국내 중소기업들의 ‘4대 수출국’은 미국, 중국, 베트남, 일본 순이다.

문제는 앞으로다.

건설장비 수출 때문에 중동지역을 자주 오가는 한 중소기업인은 “두바이 출장 중에 바이어들로부터 전화를 받고 (한국에)계엄령이 난 것을 알았다. 가뜩이나 경기가 좋지 않아 죽을 맛인데 45년전으

로 돌아간 역사를 다시 체험하는 것 같아 씁쓸했다”며 “바이어들로부터 계속 연락이 온다. 별일 아닌 해프닝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해외 거래처들은) 심리적으로 확신이 들 때까지 관망할 것으로 보인다. 수주 하락도 예상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전문가들도 내수보다 수출이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채운 교수는 “특히 수출 초보기업의 어려움이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신규로 수출 계약을 맺거나 투자 유치를 모색하는 기업은 리스크가 더 커지면서 조건이 불리해지거나 보증을 추가로 제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책 지원이 필요한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에 응찰한 경우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면서 “이런 점에서 수출지원기관 및 금융기관에서 RG(선수금환급보증)나 신용장 발급 등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해 기업들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도 정부의 수출 정책이나 기업의 수출 전략을 다시 짜야 하는 상황이다.

산업연구원은 앞서 내놓은 산업경제이슈 보고서에서 트럼프 재선으로 ▲미국의 대한민국 무역수지 적자 축소 위한 다양한 통상 압박 ▲무역수지 적자 폭이 증가한 품목 중심으로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요구 가능성 ▲승용차, 냉장고 등에 대한 미국 측의 무역수지 개선 압력 증가 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오동윤 교수는 “한국경제의 미래가 달려 있는 수출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 일부에선 트럼프 정부가 관세를 높이면 우리 경제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분석하기도 한다. 하지만 관세는 수단일 뿐이

다. 미국의 목적은 따로 있을 것이다. 한·미 FTA 개정 유도 등이 대표적이다. 마침 통상 전문가들이 정부내에 많이 포진해 있다. 시국이 어수선하지만 통상, 외교, 산업 등의 담당자들이 머리를 맞대 효과적인 대안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외교부 출신인 오영주 장관은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수출·진출을 돕기 위해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공공기관·기업 등이 두루 참여하는 민관협업 지원체계를 전세계에 구축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국무위원 총사퇴로 향후 추진 동력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에 모두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오 장관은 앞서 “직위에 연연하지 않고 민생에만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계엄 관련 국무회의에 대해선 “(어떤 의견을 냈는지) 말할 기회가 오면 그때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 ◆중소·벤처 정책 근본서 출발... ‘디지털 대전환’ 더욱 속도 내야

우리 경제에서 기업수의 99%, 종업원수의 81%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소상공인,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정책을 이참에 대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더욱 빨라지고 있는 개헌 논의다.

오동윤 교수는 지난 2월 말 중기연구원장을 마무리하면서 한 특별강연에서 “초일류 대한민국으로 가기위해선 ‘협력과 경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10차 개헌에선 헌법 제123조를 ‘국가는 중소기업의 협력·경쟁을 지원해야 한다’로 바꿔야 한다”고 제시했다.

헌법 제123조는 1987년 9차 개헌 이후 지금까지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 교수는 “이제는 보다 근본적인 것을 고민해야 할 때”라면서 “이런 시각을 놓치면 우리 중소기업은 영원히 ‘보호·육성’의 프레임에 갇혀 경쟁력을 잃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인공지능(AI) 등을 중심으로 디지털 대전환(DX)을 통한 중소기업들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도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주영섭 교수는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확보가 어느때보다 중요하다. 제품 및 서비스에 AI를 적용하면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 그다음 마케팅, 제품 개발, 구매, 생산, 판매, 서비스 등 기업의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다. 1년안에 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밝혔다.

## 전문가들 “정책 지원으로 피해 최소화” 개헌엔 ‘中企 협력·경쟁 지원’ 목소리 DX 전환, 中企·벤처 경쟁력 키워야 정책·DX 결합, 中企 위기 ‘타개책’

그러면서 주 교수는 “중기부 지방청, 중진공 지역본부,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중기벤처 관련 협단체 지방조직을 활용해 전국에 중소벤처기업의 DX·AX를 돕는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이를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정 공백이 자칫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윤병섭 교수는 “대기업도 70% 가량이 내년 투자 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등 힘든 상황이다. 대기업의 어려움은 중소기업으로 전이된다. 이같은 어려움을 타개할 방법을 빠르게 모색해야 한다”면서 “규제 완화, 정책 자금 확대 등 기존 지원 정책 강화 뿐만 아니라 내수를 진작시킬 수 있는 추가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기업도 긍정적 마인드를 통해 경기·경제 심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채운 교수는 “무엇보다 국회가 능동적으로 경제와 민생을 챙겨야 한다. 여당은 기업들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고 야당의 협조를 구해야 한다. 야당은 초당적으로 경제살리기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 3번째)이 지난 6일 서울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에서 열린 12월 동행축제 개막식 행사장을 둘러보며 참석상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중기부

# 여러분의 아이디어로 다음 시대 K-AI를 열어갑니다

## 박규연님의 아이디어

정답을 맞힐 때까지  
나를 뒤달해 주는  
학습지



## 정다연님의 아이디어

시각 장애인을  
소리로  
안내해 주는  
지팡이



## 이현님의 아이디어

상대방의 감정과  
생각을 알려주는  
번역기



## 김진욱님의 아이디어

맛집을  
찾아주고  
통역까지  
해주는  
여행  
캐리어



## 이재목님의 아이디어

알아서 모종을  
심어주고  
약까지 뿌려주는  
농기구



kt, 당신과     미래 사이에

팬메이드  
K-AI 아이디어  
챌린지  
응모 기간: ~12/31(화)



# 민주당, 예산안 7000억 추가 삭감·내란 특검발의 등 총공세

대통령실 수행사업 예산 추가 삭감  
내란혐의 상설특검, 거부권 행사 못해  
김건희 특검법도 네 번째 발의  
수사 대상, 15가지로 대폭 증가

민주당이 삭감 예산안 증액 협의의 전제조건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처리를 내걸고 내란 상설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는 등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 원안에서 4조 1000억원을 삭감해 예결위에서 처리한 삭감 예산안에서 추가로 7000억원을 깎겠다는 방침을 8일 밝혔다. 민주당이 추가 삭감한 7000억원은 전직 대통령 경호와 대통령 비서실 직원 급여, 여론조사 등 대통령실 수행 사업 예산이다. 민주당의 추가 삭감 예산안은 계엄 상황 등을 반영했다.

예산안 협상의 상대방인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추경호 원내대표의 사의 표명으로 공식이 돼 있어 증액 협상의 장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와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이 열릴지조차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한 10일에 강행처리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우 의장을 찾아 예산안 처리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우 의장과 면

담 후 기자들과 만나 "대외신인도 유지와 경제안정을 위해 여야 합의에 의한 예산안의 조속한 확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여야협상의 물꼬를 큰 리더십으로 터달라고 요청드렸다"라고 밝혔다.

이에 우 의장은 "비상계엄 사태가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국회의원들을 제

포하려는 기도였었고 결국 그로 인해 국회에서의 예산안 논의가 불가능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가 말했다.

이외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야당 주도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처리했다. 민주당 주도로 지난 6일 발의된 상설특검은 1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일반 특검이 아닌 상설특검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민주당은 일반 특검으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일반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2·3 윤석열 대통령 내란 사태와 관련한 특검법은 수사 대상 범위를 지금 발생했던 내란 행위와 관련된 일체의 의혹을 다 포괄해 수사 대상 범위에 포함시켰다"며 "특검 추천 방식은 야당, 국회 추천은 완전히 배제하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이 각각 한명씩 추천해 세 명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요한 특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설특검법이 처리되고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데, 상설특검이 진행되면 일반특검과의 관계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일반특검법은 상설특검의 수사 대상과 인력을 그대로 흡수해 오늘 제출한 특검이 최종적인 수사 주체가 되도록 했다"고 했다.

민주당이 네 번째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지난 세 번째 특검법보다 대폭 증가한 15가지에 이른다. 특검 추천 방식은 더불어민주당과 비교해 단체가 각각 1명씩 추천하는 방식 등이 적용된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8일)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위해 조지호 경찰청장장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12일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선 '내란 일반특검'과 '김건희 특검', 박 장관·조 청장 탄핵안을 모두 표결 처리할 계획이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 尹, 직무배제 상태?... 대통령 권한 행사는 '여전'

尹, 사생활 공개활동 중지 상태지만  
자진퇴사 의사 없어... 대통령직 유지  
2선 후퇴, 헌법상 불가... 野 '탄핵 필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2선 후퇴를 시사했지만, 여전히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와중에 법무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조치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사과하고 임기 문제를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힌 후 관저에 머물면서 여론과 정치권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주 월요일에 있던 대통령주재 수석 비서관회의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도 모두 열리지 않았다.

대통령실 역시 침묵을 지키고 있다. 사실상 공개 활동은 중지한 상태. 그러나 이같은 상황을 '직무배제'라고 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로 외국에 국가를 대표하며, 국군통수권을 갖고 있다. 공무원 임면, 조약 체결, 외교사절, 선전포고·강화, 계엄선포 등 권한도 대통령에게 속한다.

또한 헌법에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 등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돼 있다.

궐위는 '대통령 사망 또는 사임으로 직위가 공석이 된 경우', 사고는 '질병·해의 체류 또는 기타 사유로 대통령 직

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다. 탄핵소추안은 국회에서 표결이 불발됐고, 윤 대통령은 자진사퇴 의사를 밝힌 바 없다. 즉 윤 대통령은 법적으로는 대통령직을 유지 중이며, 대통령의 권한을 여전히 행사할 수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 대통령에 대해 '직무배제 상태'라고 언급한 것은 헌법상 근거가 없는 발언인 셈이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전날(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를 재가했다. 행안부는 전날 대변인실 명의로 "이상민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고 그 사의가 수용되어 입장문을 보낸다"로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이 이 장관의 사의를 재가했다는 의미다. 헌법에 따르면 국무위원의 임면권자는 대통령이기 때문

이다.

또한 윤 대통령은 탄핵표결을 하루 앞둔 지난 6일 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후임으로 오호룡 국정원장 특별보좌관을 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관급인 진실화해위원장에 박선영 전 의원 임명안을 재가하기도 했다.

또 이날 국방부는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은 아직 대통령에게 속해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대통령의 '2선 후퇴'는 헌법상 불가능하다고 공표한 셈이다. 이때문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2선 후퇴'는 존재하지 않으며, 직무정지를 시키려면 탄핵이 필수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다 체포·구속 등 구금될 경우도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 현행 헌법에서는 이같은 상황에 대한 규정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아서다.

이에 대해 검사 출신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대통령의 옥중 집무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질서 있는 퇴진은 헌법에 규정된 탄핵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 본부는 전날 윤 대통령을 내란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오후 3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이에 법무부는 곧바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조치했다.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며, 현 상황에서 대통령 업무를 수행하기는 더욱 어려워졌다.

/서예진 기자 syj@

## 비상계엄 여파...尹 지지율, 취임 후 첫 10%대 기록

17.3% 기록... 직전 조사比 7.7%p 급락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급락하면서 취임 후 처음으로 10%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여야 정당 지지율 격차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대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리얼미터가 예너지경제신문 의뢰로 5~6일(12월 1주차) 윤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해 묻은 결과 '잘하고 있다(긍정평가)'는 17.3%, '잘 못하고 있다(부정평가)'는 79.2%였다. 이는 리얼미터 조사 기준으로 윤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10%대에 들어선 조사다.

긍정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7.7%p 포인트(p) 낮아졌고, 부정평가는 같은 기간

8.2%p포인트 높아졌다. 긍·부정평가 간 격차는 61.9%p포인트다.

권역별 지지율은 모든 권역에서 하락했다. 가장 크게 하락한 지역은 보수정당이 강세인 부산·울산·경남으로, 14.3%(14.9%p포인트↓)였다.

연령대별 지지율은 20대에서 1.2%p 상승했고, 나머지 연령층에서는 하락했다. 가장 많이 하락한 연령대는 핵심 지지층인 60대로, 18.3%(16.0%p포인트↓)였다.

이념성향별 지지율은 보수 31.4%(13.6%p포인트↓), 중도 14.3%(7.6%p포인트↓), 진보 6.3%(3.5%p포인트↓)로 나타났다.

지지율 일간 지표는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지난 5일(목) 19.1%를 기록한 데 이어, 다음날인 6일(금)에는 15.5%

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지지율 역시 하락하며 더불어민주당과 최대 격차를 보였다.

같은 기간 진행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이 26.2%, 민주당은 47.6%로 집계됐다. 이어 조국혁신당(7.3%), 개혁신당(4.3%), 진보당(0.8%) 순이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11.5%였다.

직전 조사에 비해 국민의힘은 6.1%p포인트 하락했고 민주당은 2.4%p포인트 상승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10월 5주차(29.4%) 이후 5주 만에 다시 최저치를 경신했다. 아울러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 지지율 차이는 21.4%p포인트로, 현 정부 출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한 것은 12·3 비상계엄 사태의 여



8일 오후 울산시 남구 롯데백화점 울산점 정문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시민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파로 볼 수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곧바로 17.5%(2016년 10월 26일 조사)를 기록하며 20%대가 깨진 바 있다.

한편,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조사와 정당 지지도 조사는 무선(97%)·유선

(3%) 자동응답 방식,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포인트였고 응답률은 4.8%였다.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예진 기자

# 함께하는 상생협력

# R&D

## 더 나은 미래! 우리가 만듭니다.

### 사업 개요

사업명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상생협력 R&D

내용

중소벤처기업부와 투자기업이 공동으로 R&D 재원을 마련하여 투자기업이 필요한 기술 또는 제품을 개발하는 중소기업에 자금 지원

### 출연기업 혜택

1. 세금혜택

#### 세액공제

출연금액의 10%  
법인세 감면

####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출연금액 손금인정

#### 투자 상생협력 촉진세제

미환류소득 공제  
(출연금액의 3배 인정)

\* 3개 혜택 중복적용 가능

2. 동반성장 평가 반영

공공기관 평가(최대 2점)  
동반성장지수 평가(최대 2.5점)

3. 자금 절약

중소기업 R&D 지원을 위한 정부매칭으로 자금 확보

# 희망퇴직에 비핵심사업 매각... 신세계·롯데 경영재편 분주

유통가 경기침체로 구조조정 속도 주요 계열사 줄줄이 조직 재정비 이마트, 올해만 두 차례 희망퇴직 롯데, 비핵심 사업 매각도 본격화

유통업계가 경기 침체와 소비심리 위축 속에서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올 한 해 신세계와 롯데를 중심으로 자회사들의 희망퇴직과 비핵심 사업 정리가 잇따르며 경영 재편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희망퇴직과 관련된 구조조정은 대부분 신세계와 롯데그룹의 자회사에서 발생했다. 특히 신세계그룹 이마트는 올해만 두 차례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이마트는 지난 3월 창사 이래 첫 번째 희망퇴직을 진행한 것에 이어, 지난 6일부터 두 번째 구조조정을 시작했다.

이마트 사내 게시판에 따르면 이번 희망퇴직 대상은 밴드1(수석부장)~밴드3(과장) 인력 중 근속 15년 이상자(2010년 1월 1일 이전 입사), 밴드4(대



신세계백화점 본점



롯데백화점 본점

/뉴시스

리)~밴드5(사원) 인력 중 근속 10년 이상자(2015년 1월 1일 이전 입사)다.

연이은 희망퇴직 단행은 수익성 악화를 극복하고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게 이마트 측 설명이다. 실제, 이마트는 올해 매출 감소와 비용 증가가 겹치며 재무적 어려움을 겪었다. 이 같은 배경 속에서 이마트가 희망퇴직을 통해 인건비를 줄이고, 조직을 재정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올 한 해 이뤄진 신세계 그룹 자회사들의 희망퇴직 접수는 대부분 창사 이래 처음으로 진행됐다.

앞서 신세계 그룹 자회사인 SSG닷컴과 G마켓은 모두 각각 지난 7월과 9월에 창사 이후 첫 희망퇴직 접수를 받았다. 신세계디에프 역시 지난달 창사 이래 첫 희망퇴직을 진행했다. 올 한 해 동안 신세계그룹 주요 유통 자회사들이 줄줄이 사상 첫 구조조정에 나선 것이다.

롯데도 사정은 비슷하다. 롯데그룹의 롯데온 역시 지난 6월 근속 3년 이상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출범 후 첫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롯데면세점은 지난 2022년에 이어 지난 8월에 만 43세 이상, 근속 10년 이상의 직원을 대상으로

두 번째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인력 감소책에 더해 심지어 롯데는 비핵심 사업 매각에도 속도를 낸다. 지난 6일 롯데그룹은 롯데렌탈을 홍콩계 사모펀드 기업 에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에 1조6000억원에 넘겼다. 매각 소식을 알리면서 롯데는 그룹 내 비핵심 사업을 본격적으로 정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구조조정과 매각이 경기 침체와 소비심리 위축 등 대외적인 상황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두 그룹의 주요 자회사

들이 시장 변화와 수익성 악화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으며 경영 효율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는 분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인력 감축은 두 그룹이 유통 시장 전반에 자회사를 많이 두고 있는 만큼, 소비 심리 위축 직격타를 받은 결과에 따른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도 신세계디에프의 경우는 희망퇴직자들에게 관철은 조건으로 최대한의 퇴직 예우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며, 내년에도 추가적인 구조조정이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기 침체가 지속된다면 비슷한 기조가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이 소비를 늘려 매출이 상승되는 게 결국 중요하다. 기업 전반이 어려운 만큼 경기가 살아서 소비 심리가 되살아 나는 게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 “외환수급 개선방안 연내 발표... 유동성 무제한 공급”

최상목 부총리 ‘긴급 거시경제간담회’ 주시백류업 펀드 3000억 추가 조성

기획재정부가 국가 비상상황 속에서 이달 중 외환수급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해외 자금의 이탈 가속화 차단에 적극 나서는 동시에, 한국 정부가 상황을 방치하지 않는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적극 드러내 보인다는 방침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최 부총리는 “채권시장은 필요시 국고채 긴급 바이백, 한은의 국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고채 단순 매입 등을 즉시 시행하고 외환·외화자금시장은 필요시 외화 RP(환매조건부채권) 매입 등을 통해 외화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외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구

조적 외환수급 개선방안도 조속히 관계 기관 협의를 마무리해 12월 중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주식·채권·단기자금·외화자금시장이 완전히 정상화할 때까지 유동

성을 무제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최대 4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 및 회사채·CP(기업어음) 매입프로그램 등 시장안정조치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준비된 상황별 대응 계획(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가용한 모든 시장안정조치들이 즉각 시행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최 부총리는 또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수급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 밸류업 펀드 중 300억원이 이미 투입됐다”며 “이번 주 700억원, 다음 주 300억원 등 순차적으로 집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음 주에는 3000억원 규모의 2차 펀드가 추가로 조성될 예정이

다. 증시안정펀드 등 기타 시장안정조치도 언제든지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 3일 게임 사태 이후 최 부총리와 한은총재, 금융위원장, 금감원장은 하루(7일)를 제외하고 이날까지 비상회의를 총 6번 개최했다.

최 부총리는 또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내 의장실을 방문해 우원식 의장에게 예산안의 조속한 확정을 요청했다. 이어 기재부 간부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어려운 시기일수록 기획재정부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국제신용평가사, 국제금융기구, 해외투자자, 주요국 재무장관, 국제투자은행 등을 대상으로 부총리 명의의 서한을 발송하기로 했다. 국제금융협력 대사를 국제기구 및 주요국에 파견하는 등 소통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는 모두 대외신인도 하락 방지를 위한 움직임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예상 은퇴 68세, 실재는 63세... 가구 절반 이상 ‘노후준비 미흡’

가구 자산 5.4억... 전년비 2.5% ↑ 순자산 10억 이상인 가구 10.9% 은퇴 후 월 적정 생활비 336만원

우리나라 10가구 중 6가구는 순자산이 3억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가 예상한 은퇴연령은 68.3세였지만 실제 은퇴한 연령은 62.8세로 은퇴시기는 예상보다 5.5년 빨랐다. 노후준비가 미흡한 가구도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2024년 가계 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가구의 평균 자산은 5억4022만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는 9128만원으로 같은 기간 0.6% 줄었다. 이로 인해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4억4894만원

으로 3.1% 늘었다.

◆ 순자산, 상위 40% 늘고, 하위 60% 줄어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순자산이 3억원 미만인 가구는 10가구 중 6가구에 달했다. 순자산 보유액이 1억원 미만인 가구는 29.2%, 1억~2억원 미만인 가구는 15.5%로, 순자산이 3억원 미만인 가구는 56.9%를 차지했다.

순자산이 10억원 이상인 가구는 전체의 10.9%였다.

한은 관계자는 “순자산 보유액이 1억원 미만인 가구는 지난해보다 0.5%포인트(p) 줄었다”며 “10억원 이상인 가구는 0.6% 늘었다”고 설명했다.

소득 5분위별로 나눠보면 상위 20%인(5분위) 가구의 순자산은 10억3252만

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6.6% 늘었다.

반면 하위 60% 이하(1~3분위) 가구의 순자산은 모두 감소했다. 하위 20%에 속하는 1분위의 순자산은 1억4974만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2% 감소했고, 하위 40%에 속하는 2분위의 순자산은 2억3742만원으로 같은 기간 1.6% 줄었다. 하위 60%에 속하는 3분위는 3억3722만원으로 2.3% 감소했다.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것으로, 하위 60%(1~3분위)인 가구는 자산이 줄거나 부채가 증가하면서 순자산이 감소했다는 분석이다.

◆ 예금보다 주식 투자비중 ↑

가구는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방법으로 저축과 금융자산 투자를 가장 많이 택했다.

저축과 금융자산 투자는 53.3%로 1년 전과 비교해 2.9%p 늘었다. 반면 가계부채 규제가 강화되면서 부동산을 구입해 여유자금을 운용하겠다는 가구는 2023년 23.9%에서 2024년 22.7%로 1.2%p 감소했다.

저축과 금융자산 투자를 살펴보면 가구는 예금에 투자하는 비중을 줄이고, 주식에 투자하는 비중을 늘렸다. 예금 투자비중은 2023년 88.8%에서 2024년 87.3%로 1.5%p 줄었고, 주식은 같은 기간 8.7%에서 9.8%로 1.1%p 늘었다.

◆ 은퇴 후 적정 생활비 336만원... “준비 부족”

우리나라 가구 중 은퇴하지 않은 가구는 10가구 중 8가구로, 은퇴 연령은 68.3세로 예상했다.

이들 가구는 은퇴 후 가구주와 배우자의 월 평균 적정생활비가 336만원이라고 응답했다. 1년 전과 비교해 11만원 증가한 수준이다. 노후를 위한 준비상황이 잘 되어 있다고 답한 비율은 8.4%인 반면 (전혀)잘 되어있지 않다 비율은 52.5%에 달했다.

문제는 실제 은퇴 나이는 62.8세로 예상보다 5.5년 빠르다는 점이다.

이들은 생활비를 주로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29.5%)과 공적 수혜금(31.9%)에 의존했다. 나머지는 가족의 수입, 자녀·친지 등의 용돈(24.3%)으로 채웠다. 생활비에 포함되는 개인저축액과 사적연금은 5.4%에 불과했다. 은퇴 예상 나이보다 실제 은퇴 나이가 빨라지고, 사적연금을 준비하는 비중이 낮아 노후준비가 미흡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나유리 기자 yu115@



신한금융그룹, 박창훈 사장 파격 인사

## 신한카드, 플랫폼 등 신사업 속도

박창훈 본부장, 차기 사장 낙점  
두번째 내부출신... '영업통' 평가  
"대대적 체질개선 등 임무 막중"



박창훈  
신한카드 차기 사장 내정자

신한금융그룹이 차기 신한카드 사장으로 박창훈 페이먼트(Payment) 본부장을 낙점했다. 통상 자회사 대표 임기가 '2+1'로 이뤄진 단 점을 고려하면 '반박자' 빠른 세대교체다. 신한카드의 신사업 확장고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신한금융그룹은 차기 신한카드 사장에 박창훈 본부장을 추천했다. 금융권에서는 박 본부장이 부사장을 거치지 않고 사장 자리에 오른 만큼 파격 인사란 평가다. 신한금융은 카드사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만큼 대대적인 변화를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본부장은 1968년생으로 문공권 신한카드 사장과 동갑이다. 진주고등학교 졸업 후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진학했다. 문 사장에 이어 두번째 내부출신 대표로 케를 함께한다. 지난 2015년 코드(Code)9추진팀장을 시작으로 ▲영업추진팀장 ▲신성장본부 부장 ▲DNA사업추진단 본부장 ▲플레이(pLa y)사업본부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박창훈 차기 사장은 조직 내부적으로 '영업통'으로 잘 알려져 있다. 코드9추진

팀과 DNA사업추진단은 신한카드 데이터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다. 해당 부서에 몸담았던 시절 날다른 영업능력을 통해 사업 확장을 도모했다는 후문이다. 지난 2022년 업무를 수행했던 플레이사업본부는 플랫폼 결제 기술을 담당한다.

신한금융이 파격 인사를 결정하면서 신한카드가 본격적으로 신사업 속도를 높일 것이라 전망된다. 박 차기 사장이 지난 2019년 신성장본부장을 시작으로 미래먹거리 발굴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업황악화 시기 문 대표의 역량이 요구됐다면 이제는 신사업을 이끌 인물이 필요한 것. 문 대표는 '정통 카드맨'으로 불리며 리스크관리와 전략기획, 경영기획 등의 업무를 수행한 바 있다.

신한금융은 이번 인사를 두고 "업계 1위인 신한카드가 타사와의 격차가 축소되고 있고 차별적인 성장 모멘텀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최고 경영자 교체론을 통해 과감한 조직 내부 체질 개선을 이끌고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 발굴에 방점을 찍었다"고 밝혔다.

신한카드는 신사업에 사활을 걸어야 할 이유가 비교적 뚜렷하다. 우선 '카드 업계 2등'으로 불리는 삼성카드와 격차가 좁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9월 말 기준 신한카드의 누적순이익은 연간 17.8% 증가한 5527억원이다. 같은 기간 삼성카드의 순이익은 23.5% 오른 5315억원이다. 지난 2022년 3분기 1313억원까지 벌어진 순이익 격차는 올해 212억원까지 줄었다.

삼성카드의 성장 배경에는 건전성 확보와 플랫폼 강화가 자리 잡고 있다. 삼성금융네트웍스는 지난 2022년 '모니모'를 출범했다. 삼성카드는 물론 삼성증권,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은 모니모를 통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삼성 금융계열사가 모두 모인 '슈퍼앱'으로 평가받는다. 신한카드가 '1등 카드사'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플랫폼 강화가 요구되는 것.

한 금융권 관계자는 "신한금융의 이번 인사는 신사업 동력 확보라는 뚜렷한 성격이 있다"며 "처음 2년간 부차용 없이 대대적인 체질개선을 이뤄야 하는 만큼 임무가 막중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은행권 대출 한파... 실수요자 '발동동'

상품판매 중단 등 총량관리 영향

▲우량 협약기업 신용대출(PPL) 등 8개다.

시중은행들이 연말 가계대출을 더 조기 위해 우대금리 폐지에 나섰다. 비대면 영업과 대환대출 등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등 곳곳 잠그기에 돌입했다.

또한 국민은행을 제외한 시중은행들은 비대면 영업을 중단했고,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농협은행은 '대출모집인' 취급 대출을 전면 중단한 상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날부터 일부 대환대출 상품 판매를 일시 중단한다. 타 금융기관 대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상품이 대상이다. 금융 취약자 보호를 위한 서민금융상품(사회망 출세대출, 햇살론15, 햇살론뱅크) 등은 계속 판매한다.

시중은행이 곳곳을 걸어 잠그고 있는 이유는 연말 가계대출 총량 관리 때문이다. 총량관리에 실패할 경우 금융당국이 내년에 대출 한도를 줄이는 '패널티'를 부과한다고 엄포를 놓았기 때문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4일부터 일부 신용대출 상품에 대해 신규 대출 시 우대금리를 폐지했다.

이로 인해 대출 실수요자들은 연말까지 자금 구하기가 어려워 것으로 예상된다. 대출이 실행되더라도 높은 이자를 감당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우대금리가 폐지되는 상품을 살펴보면 ▲우리 주거레 직장인대출 ▲우리 WON하는 직장인대출 ▲우리 스페셜론 ▲우리 첫 급여 신용대출 ▲우리 WON플러스 직장인대출 ▲참군인 우대대출 ▲시니어플러스 우리 연금대출

금융권 관계자는 "연말 총량관리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 시중은행이 대출 문턱을 더욱 올릴 가능성이 높다"며 "결국 대출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내년 초까지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비씨카드, '마이태그' 송년 할인 이벤트

쇼핑몰, 편의점, 여행플랫폼 등 혜택

라빈스에서 최대 2000원을 아낄 수 있다. 이어 매머드커피와 메가커피 등에서는 500원을 할인한다.

비씨카드는 이달 마이태그를 통한 송년 할인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여행객을 위한 혜택도 마련했다. ▲진에어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등 항공사 앱에서 20만원 이상 결제 시 2000원을 할인한다. 여행·여가플랫폼에서도 최대 2000원 할인 혜택을 지급한다.

'마이태그'는 맞춤형 할인 서비스다. 생활금융플랫폼 '페이북'에서 비씨 개인 신용·체크카드 이용 할 수 있으며 결제 전 해당 혜택을 태그하면 된다. 비씨카드 회원사에도 동일한 혜택을 제공한다.

오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타임딜' 마이태그를 진행한다. CU편의점과 스타벅스에서 최대 3000원을 할인한다. 배달앱에서 2만원 이상 결제해도 3000원을 절감할 수 있다.

온·오프라인 쇼핑몰에서 '크리스마스 마이태그 할인 이벤트'를 실시한다. 무신사와 29CM에서 7만원 이상 비씨카드 구매 시 3000원 할인한다. 이어 고가 가전제품과 휴대폰은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쿠팡 ▲애플스토어 마이태그를 활용하면 된다.

박복이 비씨카드 전무는 "연말연시를 맞아 비씨카드 고객이 다양한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뚜레쥬르와 투썸플레이스, 배스킨

/김정산 기자

## 2금융권, 저축은행 등 매물... M&A 급물살

내년 업황개선 기대감 고조  
카드사 등 매력적인 매물 평가



Chat GPT에 의해 생성한 인수금융 이미지.

롯데카드와 상상인저축은행의 매각설이 나오면서 2금융권 M&A(인수합병)가 성사될 지 관심이 쏠린다. 기준금리 인하 등 2금융권의 영업환경이 개선될 것이라 기대감이 있어서다. 일각에선 예비 인수자가 가격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 것으로 예상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OK금융그룹이 상상인저축은행 인수에 관심을 갖고 있다. OK금융그룹은 내달 2주간의 실사를 통해 인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당초 OK금융그룹은 증권사 인수를 시사했다. 그러나 저축은행권 시장에서 입지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9월 말 기준 OK저축은행의 자산 규모는 13조7843억원이다. SBI저축은행(14조8211억원)에 이어 업계 2위다.

OK저축은행이 상상인저축은행을 인수하면 단숨에 업계 1위로 도약할 수 있다. 현재 상상인그룹은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등 2곳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상상인저축은행의 총자산은 2조7554억원이다. 1위인 SBI저축은행과 2조원 가까이 격차를 벌릴 수 있는 셈이다.

상상인저축은행뿐 아니라 롯데카드 매각설도 수면 위로 올랐다. MBK파트너스가 UBS를 매각 주관사로 선정하면서다. MBK파트너스는 롯데카드 지분 59.8%를 보유한 대주주다. 당초

MBK파트너스가 인수금융을 5년 연장하면서 롯데카드 매각이 연기될 것이라 전망이 우세했던 만큼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앞서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2년 JP모건을 매각주관사로 선정해 롯데카드 매각을 추진한 바 있다. 금융지주사와 KT 등이 인수전에 뛰어 들었지만 가격을 두고 입찰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무산됐다. 당시 MBK파트너스는 롯데카드의 몸값을 3조원으로 책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롯데카드 자회사인 로카모빌리티를 맥쿼리자산운용에 3961억에 매각했다. MBK파트너스가 본격적인 가격 협상을 시작하면 롯데카드의 몸값을 2조5000억원으로 책정할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아울러 롯데카드의 베트남 법인인 '롯데파이낸스베트남'도 지난 6월 출범 이래 첫 흑자를 기록했다. 해외 영입이 성공적으로 흘러가는 것 또한 가격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 것이라 분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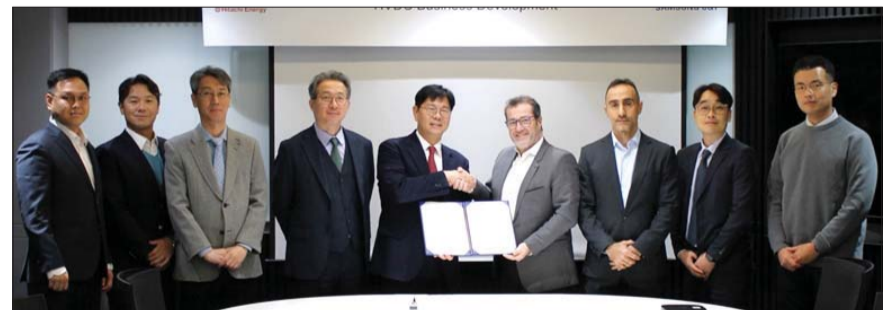
이처럼 2금융권의 인수금융 시장이 활성화하는 배경에는 업황 개선이 자리 잡고 있다. 한국은행이 2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내년 하반기에는 2금융권의 대출업무가 가지개를 걸 수 있을 것이라 관측이 나온다. 본격적인 영업활황을 앞둔 만큼 카드사와 저축은행 모두 매력적인 매물로 평가받는 것.

인수 후보자가 가격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 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란 해석이다. 다음해 업황개선 조짐이 나오지만, 시장에 변수가 발생하면 인수자가 책임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상상인저축은행의 가격 협상이 치열할 것이라 분석이 나온다. 업계 10위권에 드는 우량 저축은행이지만 지난해부터 건전성 지표가 크게 악화하면서다.

지난 9월 말 기준 상상인저축은행의 누적 손실액은 658억원이다. 전년 동기(480억원) 대비 37.0%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고정이익비율은 13.29%에서 22.27%로 8.98%포인트(p) 상승했다. 자산의 안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유동성 비율은 연간 146.73%p 줄어든 124.75%로 집계됐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롯데카드 매각보다 상상인저축은행 인수가 우선 추진될 것"이라며 "상상인저축은행 인수가 건전성 지표에 따른 리스크가 큰만큼 OK금융그룹 내부에서도 기업가치 대비 저렴하게 인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판단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최근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히타치 에너지 코리아 본사에서 진행된 협약식에서 삼성물산 김성준 P&G영업팀장(부사장·왼쪽 다섯 번째)과 히타치 에너지 알몬드 피네타 영업총괄(오른쪽 네 번째) 등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삼성물산

삼성물산 건설부문, HVDC 사업 본격 추진

삼성물산이 글로벌 에너지 인프라 확대에 발맞춰 본격적인 HVDC(초고압직류송전) 시장 공략에 나섰다.

업의 핵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최근 히타치 에너지와 글로벌 HVDC 사업에 대한 협력과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김성준 삼성물산 P&G영업팀장(부사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양사의 핵심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과 성장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HVDC 사

/안상미 기자 smahn1@

# 미국, 동남아 태양광 관세 폭탄... 한국 기업에 '호재 바람'

동남아산 반덤핑관세 부과 예비 결정 베트남 등 최대 271.3% 관세 부과 국내 태양광 업계 반사이익 기대

미국 상무부가 동남아산 태양광 전지에 관세 예비 결정을 내렸다. 이에 저가 중국산 모듈의 우회 수출이 사실상 차단되면서, 국내 태양광업계가 미국 수출에서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 11월 29일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태국 등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전지에 대해 회사별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예비 결정했다.

지난 10월 상계 관세 부과 결정에 이은 이번 조치는 미국에서 태양광 발전 설비나 부품을 생산하는 한화큐셀US A, 퍼스트솔라 등 7개 업체로 구성된 '미국 태양광 제조업 무역 동맹 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앞서 미국 태양광 제조업 무역 동맹



한화큐셀이 완공한 미국 캘리포니아 주 소재 태양광 발전소(50MW).

/한화솔루션

위원회는 지난 4월 상무부에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제품에 대한 조치를 청원한 바 있다. 동남아시아 4개국에 태양광 패널 공장을 둔 중국 기업이 부당한 보조금을 받고 생산 비용을 밀도는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미국 시장에 수출해 자국 경쟁력을 해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조치에 따라 JA솔라베트남, 진코솔라, 보비엣솔라, 트리나솔라 등 업체들에는 53.2~56.4% 범위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다. 이외 베트남 수출업체는 271.3%의 반덤핑 관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캄보디아산 태양광 제품에는 117.1%가 적용되며 말레이시아의 경

우 업체별로 17.8~81.2%의 반덤핑 관세율이 적용된다. 상무부의 예비결정에 대한 최종 판정은 내년 4월에 내릴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반덤핑 관세를 적용하면서 국내 태양광 업계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 내 설치된 대부분의 태양광 패널은 외국산으로 80%가 동남아 4개국에서 반입되는데, 그동안 상대적으로 점유율이 낮았던 국내 제품의 수입 비중이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미국을 주력 시장으로 타겟팅하고 있는 한화큐셀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화큐셀은 내년부터 태양광 밸류체인 전반을 갖추게 되는 가운데, 반덤핑 관세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미국 시장 점유율 확대에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글로벌 조사기관 우드맥킨지에 따르면 한화큐셀은 미국 태양광 모

듈 시장에서 주택용·상업용 점유율이 각각 35%, 35.3%로 1위를 기록 중이다. 향후 미국 현지에서 시장 입지를 더욱 다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OCI홀딩스도 미국의 대중국 제재 조치 속에서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현재 OCI홀딩스는 미국에 웨이퍼·셀 등 태양광 부품 생산거점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정책 변화 가능성 등 시장 불확실성 요인이 커지고 있으나, 현재까지의 미국 태양광 시장은 국내 업계에 긍정적이라고 분석한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관세 부과 조치로 미국 태양광 시장이 균형 잡힌 환경을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공급망 안정화와 가격 구조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 30년 협력 균열... 송출 중단 '장기화' 조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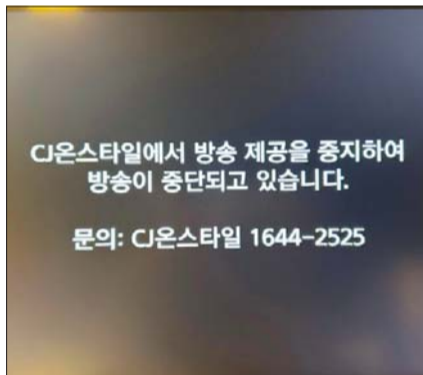
CJ vs 케이블, 수수료 갈등 격화 과거부 중재에도 '블랙아웃' 5일째

케이블TV와 CJ온스타일 간의 송출 중단 사태가 발생한 지 5일이 지났지만, 양측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갈등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인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4대 TV홈쇼핑 중 하나인 CJ온스타일은 지난 5일 자정부터 딜라이브와 CSS충북방송, 아름방송 등 3개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해 방송 송출을 중단했다. 이는 송출 수수료 협상 결렬이 원인이다. 4대 TV홈쇼핑 가운데 송출 수수료 문제로 방송을 실제로 중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송출이 중단된 채널에서는 "CJ 온스타일에서 방송 제공을 중지해 방송이 중단되고 있습니다"라는 안내 문구만 표시되고 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송출 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이다. 송출 수수료는 TV홈쇼핑 업체가 SO·위성·인터넷(IP)TV 등 유료방송사로부터 채널을 배정받기 위해 지불하는 비용으로, 유료방송사 매출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최근 TV 시청자 감소와 소비 위축으로 홈쇼핑 매출이 줄어들며 업계 전반에서



국내 4대 TV홈쇼핑 중 하나인 CJ온스타일은 지난 5일 자정부터 딜라이브와 CSS충북방송, 아름방송 등 3개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해 방송 송출을 중단했다. 위 이미지는 송출이 중단 채널에서 나오는 화면. /CJ온스타일 갈무리

수수료 조정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CJ온스타일은 "케이블TV사의 가입자 감소와 홈쇼핑 매출 하락에 따라 수수료 인하가 필요하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해당 3개 케이블TV 사업자의 매출 감소 폭이 큰 점을 들어 "합리적인 수준의 조정을 요구했으나, 협상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방송법과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에 근거해 적절한 절차였다고 주장했다.

반면, 케이블TV 업계는 CJ온스타일

이 기존 대비 "60% 이상의 과도한 수수료 인하를 요구했다"면서 "협상 중 송출을 중단한 것은 일방적 계약 파기이자 시청권 침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실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협상 중인 기간에는 송출을 중단할 수 없다.

케이블TV 업계는 이번 사태가 단순히 양측의 수수료 문제를 넘어 유료방송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케이블TV협회는 지난 5일 입장문을 통해 "CJ온스타일의 무책임한 태도는 케이블TV가 지난 30년간 홈쇼핑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며 유지해 온 상호 의존적 구조를 근본적으로 흔든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SO의 영업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뿐 아니라 유료 방송 생태계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국민의 기본 시청권마저 침해했다"며 CJ온스타일의 송출 중단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도 갈등 봉합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가검증협의체를 열어 양측이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협상 절차를 점검하고 있다.

/이혜민 기자 hyem@metroseoul.co.kr

## "스마트 주차 보조, 이제 카드 한 장으로"

현대모비스, 스마트키 보급 확대

신용카드 크기지만 버튼을 눌러 차 문을 여닫고 자동으로 주차도 할 수 있는 스마트키 보급이 확대된다.

현대모비스는 현재 아이오닉5N에 공급하고 있는 스마트카드키를 신타페와 투싼, 그랜저 등 현대차 주요 차종으

로 확대 판매한다고 9일 밝혔다.

현대모비스 카드형 스마트키는 두께가 2.5mm에 불과하지만 버튼을 눌러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차문 개폐와 트렁크 개방은 물론 시동도 미리 걸 수 있다. 센서를 이용해 주차와 출차가 가능한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RSPA)도 가능하다. 버튼 작동 거리는 30m 이상에 달한다.

현대모비스의 카드키는 초광대역 무선통신(UWB)을 활용한다. 직접 접촉 방식인 근거리 무선통신(NFC)과 달리 카드키를 매번 주머니에서 꺼내지 않아도 된다. 리튬이온배터리를 내장해 운전석 옆에 올려두면 스마트폰처럼 무선으로 충전할 수 있다. 현대모비스가 선보인 스마트카드키는 현대홈페이지에서 판매 중이며 블루투스에서 보안 인증을 거쳐 사용할 수 있다. 가격은 12만 9000원이다. /양성운 기자 ysw@

## 에쓰오일, AI Assistant로 디지털 전환 가속

AI 기반 업무 지원 시스템 도입

에쓰오일이 전사적 디지털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에쓰오일은 AI 기술을 활용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사내 AI Assistant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사내 공통 업무 지원, 부서 특화 업무 지원, 그리고 일반 GPT 기반 서비스로 구성됐으며, 직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할 예정이다.

AI Assistant는 사내 문서와 시스템 내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질의에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답변을 제공하며, 해당 정보의 출처 문서까지 함께 제

시한다. 이를 통해 잘못된 정보 제공 문제를 방지하고, 데이터 유출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기존 Open AI 서비스의 한계를 효율적으로 극복했다.

특히 이 서비스는 ▲인사·복지후생 업무 안내, ▲구매 규정 및 프로세스 지원, ▲준법 자문 제공, ▲영업 업무 절차 안내, ▲공정 관련 스펙 검색 등 다양한 업무 영역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또한 2025년까지 재무, 공정 등 추가 업무 영역으로 확장하고, 모바일 지원 기능을 도입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에쓰오일은 지난 3일 전사적인 설명회를 개최해 서비스 활용 방법과 목표를 공유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 LG, 장애인·시니어 위한 맞춤 가전 솔루션

'컴포트 키트' 신제품 6종 발표

LG전자가 'LG 컴포트 키트' 신제품 6종을 추가로 선보이며 장애인과 시니어(고령자) 등의 가전 접근성을 높인다.

LG 컴포트 키트는 성별, 나이,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고객이 LG전자 생활가전을 손쉽게 사용하도록 돕는 보조 액세서리다. 지난 3월 LG전자가 가전 업계 최초로 선보였다.

새로 추가된 컴포트 키트 6종은 가전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여주는 신규 및 업그레이드 제품으로 이뤄졌다. 각 키트들은 장애인과 시니어 고객이 가전 사용 중 겪는 불편함을 분석해 이를 도울 수 있도록 설계됐다.

대표적으로 시각장애인의 터치 조작을 돕기 위해 터치부에 점자 표시와 구멍을 추가한 '인덕션 실리콘 패드', '정수기 실리콘 커버'가 있다. '로봇청소기 컬러리스트'는 로봇청소기에 부착해 위치



LG전자가 'LG 컴포트 키트' 신제품 6종을 추가로 선보이며, ESG 비전인 '모두의 더 나은 삶'의 일환으로 누구나 가전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을 확대한다. 사진은 LG 컴포트 키트 신제품 6종이 설치된 모습. /LG전자

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돕는 커버 시트다. 눈에 잘 띄도록 빨간색으로 제작했다.

'냉장고 회전 선반'은 냉장고 깊숙한 곳에 있는 물건도 손쉽게 꺼낼 수 있도록 돕는다. '퇴운 미니용 이지핸들' 역시 손 움직임이 제한적인 사용자에게 씨앗 키트를 손쉽게 분리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구남영 기자 koongja\_tea@



칠레 최정상 아이콘 와인  
몬테스

# 게임 후폭풍... 코스피 2.78% 추락

(전일 대비)

52주 신저가 기록 종목 1272개  
전체 거래종목 중 48.3% 달해

개인 8897억 매도, 기관·외인 매수  
상위 10개 종목 중 SK하이닉스 외  
KB금융·현대차·삼성전자 등 하락  
정치 테마주 '안랩' 추가 25.57% ↑

6시간 만에 종료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의 후폭풍이 거세다.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무산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자 투자심리가 극도로 위축돼 국내 증시는 폭락양상을 보였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9일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2.78% 하락한 2360.58 포인트를, 코스닥 지수는 5.19% 하락한 621.01포인트를 기록하며, 두 지수 모두 연중 최저점을 기록했다.

이날 증가 기준 52주 신저가(최근 1년 중 가장 낮은 주가)를 기록한 종목은 1272개로, 전체 거래종목 2631개(상장종목 2735개)의 48.3%에 달한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 이 쌍끌이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개인의 매도세에 지수는 무너졌다. 개인은 8897억원을 순매도한 반면, 기관은 6919억원, 외국인은 1032억원을 순

매수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법적 조치가 강제되며 정치적 불안정성이 고조되자 증시가 불확실성의 터널에 갇혀 하락세를 극복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 내란 혐의와 관련해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은 물론 김용현·이상민·박인수·여인형·이진우·곽종근·조지호·김봉식·목현대·추경호 등 11명에 대한 고발 5건을 접수해 전원 입건한 상태다. 이들은 내란 혐의, 군형법상 반란 혐의, 직권남용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날 오후에는 '대통령 출국금지'라는 초유의 사태도 발생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이후 지속되고 있는 대내외적 불확실성도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쳤다.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정책 강화는 한국의 대미 수출에 부담을 주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기업들은 통상 압박에 직면하고 있다.

실제로 이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는 SK하이닉스(1.08%)만 주가가 소폭 상승하고 나머지는 모두 떨어졌다. 밸류업 수혜주로 꼽히는 KB금융(-2.93%)을 비롯해 현대차(-1.23%), 기아(-2.95%) 등이 모두 하락했다.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

자(-1.29%)와 삼성전자(-1.54%)도 하락세를 보였다. 상승종목은 5개, 상승종목은 60개에 그쳤으나 하락종목은 870개 종목이다. 8개 종목은 포함 마감했다.

다만 '정치 테마주'는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며 투심을 비정상적으로 자극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가 불참한 가운데 표결 당시 자리를 지킨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테마주가 강세를 보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부결 투표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상정되자 집단으로 퇴장한 바 있다.

정치 테마주 중에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한 영향으로 안랩은 25.57% 상승했고, 안 의원 테마주로 분류되는 씨니전자와 까뮤이앤씨도 각각 29.73%, 11.38% 올랐다.

이용찬 iM증권 연구원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시점이 오면 시장은 회복할 수 있다"며 "2004년과 2016년 탄핵 사태 때도 중국엔 불확실성이 지나갔다"고 말했다. 그는 "빠른 정치적 결정이 증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 인터뷰 | 박희운 한국투자신탁운용 솔루션 본부 전무

### "해외주식·국내채권 배분으로 노후 대비"

국내시장 전체 타깃데이트펀드(TDF) 중 올 들어 가장 높은 수익률을 낸 상품은 한국투자신탁운용의 '한국투자 TDF알아서ETF포커스'다.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2030(18.40%), 2035(19.74%), 2040(21.39%) 등의 빈티지에서 1위를 기록하고, 설정액도 지난 5일 2000억원을 돌파하며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이 상품을 운용하는 선봉에는 박희운 한국투자신탁운용 솔루션본부 전무가 서있다.

그는 은퇴와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대비한 자산배분 전략의 선구자로 꼽힌다. 삼성자산운용 리서치센터장 출신인 그는 2022년 배재규 한투운용 대표의 영입으로 현재의 자리에 올랐다. 박 전무는 금융 시장에서의 변화와 규제를 경험하며 자산배분 전략에 주목하게 됐다. 그는 정보 비대칭성 규제가 강화된 이후 시장 환경이 달라졌다는 것을 깨닫고 2016년부터 리스크 대비 리턴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박 전무, 규제강화 이후 자산배분 연구  
알아서ETF포커스, TDF 최고 수익률  
글로벌 증시 상승세 활용하면서  
환율 변동성 리스크 줄일 수 있어



메트로경제와 인터뷰하고 있는 박희운 한국투자신탁운용 솔루션본부 전무.

/한국투자신탁운용

상관관계를 기반으로 최적화된 매개변수를 도출하고, 이를 통해 주식과 채권, 금을 언헤지드 상태로 배분해 변동성을 줄인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박 전무는 "LTCMA 전략은 '한국투자 TDF알아서ETF포커스펀드'에 그대로 반영했다"며 "해외 주식에 대해 롭바이어스를 지양하고, 채권은 국내 자산을 편입하는 미스매칭 전략을 사용했다"고 부연했다. 이는 글로벌 증시 상승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도 환율 변동성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다만 그는 TDF가 퇴직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비책이 될 수 있지만, 현재 퇴직연금 시장이 처한 현실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아직도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집중된 퇴직연금 시장의 한계에 대해서 말하며 "퇴직연금 대부분이 원리금 보장형에 묶여 있어 인플레이션에 취약하다"고 봤다. 이어 "2030 세대라면 주식 비중을 70~80%까지 가져가야 은퇴 시점에 원하는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끝으로 박 전무는 고객의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 곧 운용사의 성과로 이어진다는 신념을 밝혔다. 그는 "자산배분 하면 '한투운용'이라는 인식을 확립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 CEO 임기만료 앞둔 증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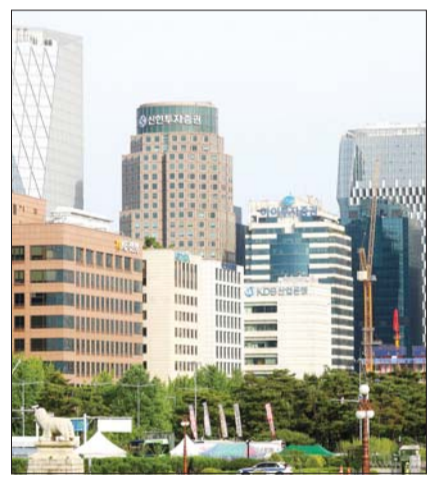
### 대·중소형사 실적 양극화에 거취 희비

증권사 11곳, CEO 인사시즌 맞아  
KB·하나·한국투자증권 등 호실적  
LS·SK증권 등은 세대교체 언급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주요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의 임기 만료가 대거 예정됐다. 올해 국내 주식시장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증권사별 양극화 현상이 깊어졌던 만큼 실적에 따라 연임 가능성이 좌우될 것으로 예상된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달부터 내년 3월 주주총회 시즌까지 약 11개 증권사의 대표들의 임기가 만료된다. 올해 12월 임기 만료를 앞둔 증권사 대표는 KB증권의 김성현, 이흥구 각 자대표와 강성목 하나증권 대표다. 다만 KB증권은 지난 6일 계열사 대표이사 후보추천위원회(대추위)를 열고 두 대표이사를 재추천했다고 알렸다. 김 대표는 5연임, 이 대표는 연임에 성공한 것이다. 앞서 양종희 KB금융 회장이 인적 쇄신을 예고하면서 세대교체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으나, KB증권이 올해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대표들도 자리를 지킨 것으로 보인다. KB증권은 올해 3분기 누적 영업이익 7355억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20.3% 성장했다.

강성목 하나증권 대표도 연임이 유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 대표는 지난해 1월 취임했는데, 지난해 적자를 딴 올 해 3분기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누적 영업이익은 1957억원, 순이익은



서울 여의도 전경. /손진영기자 son@

1818억원을 기록했다.

김성현 한국투자증권 대표이사도 취임 첫해에 '1조클럽'을 달성하면서 연임에 청신호가 켜졌다. 한투증권은 올해 3분기 누적 영업이익과 순이익 모두 1조원을 넘겼으며, 아직까지 유일한 2024년 '1조클럽' 증권사다. 더불어 '1조클럽' 재입성을 위해 바짝 추격하고 있는 미래에셋증권의 김미섭, 허선호 대표도 재연임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의 올해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9145억원이다.

서학개미(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의 증가로 해외 증권거래 대금이 늘어나면서 증권사들의 실적이 선방한 결과다. 하지만 대형 증권사와 중소형사의 양극화가 심화된 만큼 대표이사들의 거취에도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내년 3월 말 임기가 만료되는 김원규 LS증권 사장은 2019년 취임 당시 '자

기자본 1조원'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수장을 맡았던 첫해부터 3년간은 실적을 성장시키며 2018년 말 4042억원이었던 자기자본 규모를 2021년 말 9286억원으로 급증시켰다. 다만 2022년 말부터는 감소세로 돌아선 점이 리스크로 꼽힌다. LS증권의 자기자본은 2022년 말 9196억원에서, 2023년 말 9355억원으로 줄어 들었고 올해 3분기에는 8817억원으로 밀려났다.

이 외에도 3분기에 영업손실을 기록한 전주중·정준호 SK증권 대표도 세대교체가 언급되고 있다. 반면, 올해 3분기 누적 영업이익(1556억원)이 전년 동기보다 145% 증가한 교보증권은 이석기 대표의 연임이 예상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올해 대형사들은 리테일 부문에서도 성과를 보이면서 안정적인 실적 성장세를 보였지만, 중소형사들은 오히려 먹거리를 잃고 있는 상황"이라며 "CEO 연임 여부가 대부분 실적에서 판가름나는 만큼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형사 중에서도 연임에 실패한 사례가 존재한다. 최근 김상태 신한투자증권 대표는 지난 8월 초부터 10월 사이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LP) 부서에서 발생한 약 1300억원 규모의 운용 손실을 책임지고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신한금융투자회사 최고경영진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5일 회의를 열고 사장 후보로 이선훈 신한투자증권 부사장을 추천한 상태다.

/신하은 기자 godhe@

## NH투자증권, 루프탑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GS에너지와 '맞손'

NH투자증권은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전환을 위한 루프탑 태양광 발전사업 양해각서(MOU) 체결식'을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신재욱 NH투자증권 IB2사업부 대표, 윤영진 GS에너지 신에너지 지원실장, 윤혜영 NH투자증권 인프라투자본부장, 김기철 GS에너지 신에너지솔루션팀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MOU를 통해 루프탑 태양광 공동개발을 위한 초석으로 GS에너지의 자회사 넥스트리뉴어블솔루션(이하 NRS)이 추진한 국내 약 18MW 규모의 직접전력공급사업(PA, Power Purchase Agreement)에 대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주선 업무를 진행했으며 지난 6일 자금 조달에 성공했다.



9일 서울시 여의도 파크원 타워2 소재 NH투자증권 본사에서 신재욱 NH투자증권 IB2사업부 대표, 윤영진 GS에너지 New Energy 지원실장(왼쪽부터)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NH투자증권

GS에너지는 탄소중립을 추진 중인 고객층을 확대해 2026년까지 최대 100MW 규모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을 발표했다. 신재욱 NH투자증권 IB2사업부 대표는 "이번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성공적인 주선을 기반으로, 향후 루프탑 태양광 금융주선사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 ‘게임 쇼크’에도 통신사는 봄날... AI 혁신으로 수익화 총력

통신사 3분기 합산 영업이익 1조 돌파  
데이터센터·클라우드사업 실적호조  
수익화 실현 위해 AI 중심 조직개편  
AI 사업매출, 내년 약 18%성장 전망

최근 게임령 쇼크 등 대내의 악재가 이어지며 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통신업만 실적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3분기 합산 영업이익이 1조원을 넘긴 통신사들은 신사업 수익화를 내년 경영 목표에 삼고 인공지능(AI) 중심 조직개편에 돌입했다. AI 전문가를 주요 직무에 배치하고 AI데이터센터(IDC)사업 관련 조직을 신설하며 주력 사업으로 발굴한다는 목표다. 이에 따라 경기 방어 성격을 띄고 있는 통신사가 AI 수익화에도 본격 돌입하자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는 등 통신업종으로 자금이 쏠리고 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가 인공지능(AI) 사업 강화에 중점을 둔 2025년 조직개편을 마무리했다. 이는 AI 수익화를 뒷받침하는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 부문에서 지난 2분기와 3분기 연속 실적 호조를 기록하며 성장세를 입증했기 때문이다.

지난 3분기 이통 3사는 올 3분기 합



SK텔레콤은 첨단 AI 기술로 산업 현장의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해주는 ‘AI 산업안전 패키지’를 출시했다고 지난 9월 26일 밝혔다. 사진은 SK텔레콤 구성원들이 AI CCTV 화면을 분석하며 AI 산업안전 패키지를 테스트하고 있는 모습.

산 영업이익 1조2434억원을 기록했다. 3개 분기 연속 1조원을 넘기며 실적에 날개를 단 것. 이에 통신사들은 기업소비자간거래(B2C) 사업과 함께 AI데이터센터(IDC)사업 관련 조직을 신설하며 AI 수익화를 빠르게 실현하겠다는 전략이다.

SKT는 지난 5일 통신과 AI 사업을 두 축으로 사업부를 재편성하는 내용을 골자한 조직개편과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SK텔레콤은 7대 사업부로 재편해 두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7대 사업부의 업무 비중을 대부분이 AI 역량 강화에 집중된다. 또

AIDC와 그래픽처리장치(GPU)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을 맡은 ‘AI DC사업부’를 별도 조직으로 신설했다. 기존에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가 협력하는 ‘T-B 엔터프라이즈 사업부’ 산하에 있던 AIDC사업부를 별도로 떼어낸 것이다.

이를 통해 SKT는 통신 사업 전반에 AI를 접목해 신사업과 통신업 간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회사는 최근 밸류업 공시를 통해 2030년까지 총매출 중 AI 매출 비중을 35%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KT는 ‘AI+ICT(AICT) 컴퍼니’로 사업구조를 전환하는 데 중점을 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KT는 B2B 사업 전반에 AI 기술을 접목하기 위해 AI 분야 융합사업을 담당하던 기존 ‘전략·신사업부문’을 ‘엔터프라이즈 부문’과 통합했다. 기존 전략·신사업부문이 담당하던 AI사업, DX(디지털전환)사업, 로봇사업을 엔터프라이즈부문의 B2B사업과 연계해 한 부문에서 총괄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으로 AIDC 사업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KT는 지난 9월 체결한 MS와 AI 및 클라우드 분야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4억5000만 달러(약 5896억원) 상당의 네트워크,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를 제공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KT와 KT클라우드, MS에 네트워크,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서비스를 공급하기로 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1일 LG그룹 경영전략부부장인 홍범식 사장을 CEO로 선임하며 4년 만에 수장을 교체했다. LG유플러스의 이번 조직개편은 ‘AI 전환(AI) 컴퍼니’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기조다. 이에 20여 년 동안 통신사업 영업을 담당하며 그룹 안팎에서 ‘영업 전문가’로 알려진 기존 황현식 대표에서 미디어, 테크놀로지 등 정보

기술(IT) 분야에 정통했다는 평가를 받은 홍 대표로 사령탑을 교체했다.

이날 처음 출근한 홍 사장은 LG유플러스 구성원들에게 ‘기본기’를 바탕으로 한 노력 필요성을 강조하며 “경쟁을 바라보면 2등은 할 수 있지만, 고객을 바라보면 1등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은 인사를 전했다.

다만, 통신사들은 국내 시장에 최적화된 AI 서비스 출시를 본격화하는 한편, 투입 비용은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최근 대내의 악재로 불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도 통신업종에는 자금이 쏠리고 있다. 최근 트럼프 관세 리스크와 게임령 쇼크 등으로 주요 수출주 등 대형주들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통신업은 경기 방어 성격이 강한 데다 신사업 수익화도 가시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통신주는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 통신 3사의 주가는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평균 24.1% 뛰어 올랐다. 김준섭 KB증권 연구원은 “통신사의 AI 인프라 사업이 향후 추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통신사가 운영하는 AI 인프라 사업 매출은 내년에도 약 18% 수준의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 넷마블 네오, 3년만에 IPO 시장 재도전

‘나 혼자만 레벨업’ 게임성 인정  
성과 가시화로 IPO 성공 기대감

비상계업 후폭풍 속에서도 넷마블 자회사 넷마블 네오가 3년만에 IPO에 출사표를 던졌다.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가 글로벌 흥행에 실적이 개선되면서 이번 IPO 추진이 성공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넷마블네오의 IPO추진 은 얼어붙은 IPO시장을 녹일 거란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9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넷마블네오는 이르면 연내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넷마블네오는 앞서 IPO를 추진하던 2021년과 마찬가지로 코스피에 도전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상장 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과 NH투자증권이다.

업계는 올해 상장 예비심사를 가뭄하게 통과한다면 내년 초 심사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넷마블네오의 IPO 추진의 배경에는 올해 5월 8일 선보인 모바일 액션 RPG

신작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의 글로벌 흥행에 따른 결과다. ‘나혼렘’은 출시한지 2주만에는 2000만 다운로드, 5개월 만에 글로벌 누적 이용자 5000만 명, 글로벌 누적 조회수 143억 뷰, 를 기록한 ‘나 혼자만 레벨업’ IP 최초의 게임이다.

출시 직후 글로벌 141개국 다운로드 1위, 글로벌 21개국 매출 1위, 글로벌 105개국 매출 TOP10, 글로벌 사전등록 1500만 등의 기록하는 등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다.

넷마블네오는 올해 3분기까지 1002억 원의 누적 매출을 기록하며 이미 지난해 연간 매출(553억 원)을 뛰어넘는 등 가파른 실적 개선을 보이고 있다. 또 나혼렘은 넷마블 전체 게임 포트폴리오 매출에서 13%를 차지하는 것도 눈에 띈다.

아울러 나혼렘은 올해 최고의 게임을 뽑는 ‘대한민국 게임대상(대통령상)’을 수상하면서

나혼렘은 올해 최고의 게임을 뽑는 ‘대한민국 게임대상’에서 대상(대통령상)을

수상하면서 게임성도 인정받았다.

수상자로 무대에 오른 권영식 넷마블네오 대표는 “대상 수상은 단순 하나의 게임이 아닌 K콘텐츠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라며 “K콘텐츠 밸류체인의 글로벌 선도모델을 처음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장외거래 플랫폼 K-OTC에서 넷마블네오의 시가총액은 4200억원 전후에 거래되고 있는 가운데 업계는 넷마블네오의 몸값을 약 1조원 이하로 책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비상계업 후폭풍에 따른 국내 증시 침체가 이어지고 있어 넷마블네오의 IPO추진에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IB 업계 관계자는 “국가 상황이 상황인 만큼 IPO 추진을 재검토 하고 있는 기업들이 생기고 있다. 넷마블네오도 추이를 지켜보며 시기 조절도 염두해 두어야 한다”고 전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소진공, 에너지 절감 노사 공동 선언문  
소진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 5일 대전본부 회의실에서 조동조합과 에너지 절감을 위한 노사 공동선언을 실시했다. 이번 선언은 환경정책 이행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한 공감대에서 출발, 함께 공동선언문에 서명함으로써 탄소중립-에너지 절감 의지를 다졌다. (왼쪽 4번째부터)윤지훈 노조위원장, 박성호 이사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소진공

## “지방산단 입주기업, 지원 아끼지 않을 것”

‘찾아가는 중진공’ 진행  
경남 진주 정촌뿌리산업단지 방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경남 진주시 정촌뿌리산업단지를 방문해 중소기업 현장 소통 프로그램 ‘찾아가는 중진공’을 진행했다.

9일 중진공에 따르면 이날 방문한 정촌뿌리산업단지는 정촌일반산업단지와 진주뿌리산업단지를 의미한다. 항공·조선·금속 등 전략산업과 뿌리산업 등 136개사가 입주해 있는 경남서부권을 대표하는 산업단지다.

현장 소통에는 강석진 이사장과 정촌뿌리산단 입주기업 협의회 회장인 김성두 응전공업대표, 차재도 케이엔씨대표 등 입주기업 8개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강 이사장은 ‘찾아가는 중진공’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기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주요 내용은 ▲2025년도 신규 지원사업 안내 ▲지역 주력산업 영위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단계적 지원 등이다.

이날 강 이사장은 정촌뿌리산단 내 응전공업을 방문해 생산현장을 점검했다. 현장을 둘러보며 지방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발전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현장 소통 프로그램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산업단지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지원과 지역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일자리 대책 등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중진공은 이날 나온 의견들을 수렴해 기업들이 현장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차년도 신규 정책사업 발굴과 사업추진에 중점 반영할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bada@

## B2B 고객대상 롯데택배 약속배송 서비스

롯데글로벌로지스  
시간대별 맞춤형 배송 옵션 지원

롯데글로벌로지스가 B2B 고객사를 대상으로 하는 ‘롯데택배 약속배송 서비스’를 출시했다.

이 서비스는 롯데글로벌로지스와 계

약한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제공하며, 고객사가 소비자에게 시간대별 맞춤형 배송 옵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9일 롯데글로벌로지스에 따르면 롯데택배 약속배송 서비스는 ‘당신의 시간에 맞춘 특별한 배송, 약속배송’이라는 슬로건 아래 새벽(오전 1시~7시), 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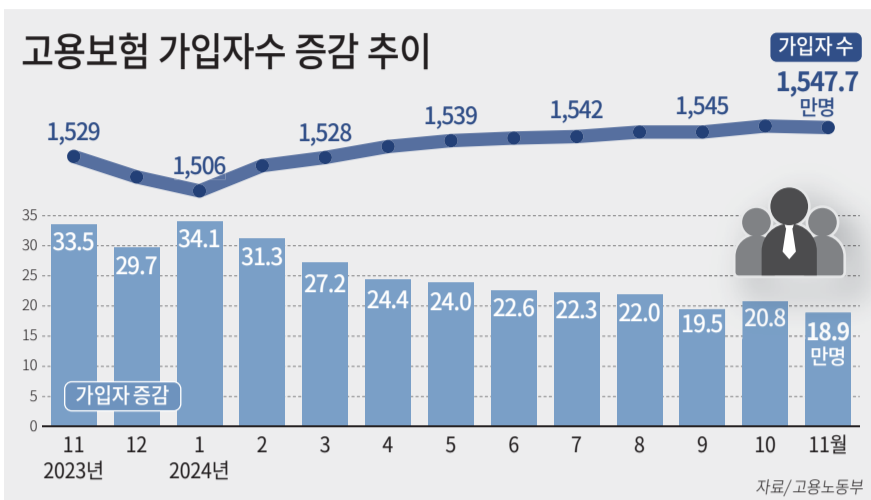
전(오전 7시~12시), 오후(오후 12시~6시), 야간(오후 6시~12시) 등 총 4가지 시간대로 운영한다.

고객사는 배송 시간대를 사전에 지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더욱 편리한 쇼핑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서울 전 지역에서 시행 중이며 향후 수도권 및 전국 주요 도시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1547만명 제조업 외국인 증가, 내국인 감소

고용부, '11월 노동시장 동향' 발표  
전년 동월 대비 18만9000명 증가  
증가폭 1월 34만명서 8개월째 하락  
건설업 1.7만명 감소, 16개월째 ↓



올해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2% 증가했지만, 상승폭은 둔화됐다. 특히 건설업 가입자는 종합건설업을 중심으로 16개월 연속 감소했으며,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9일 발표한 '2024년 11월 고용행정 통계'를 보면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47만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18만9000명) 증가했다.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의 증가폭은 올해 1월 34만1000명으로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 5월 24만명, 6월 22만6000명, 7월 22만3000명, 8월 22만명, 9월 19만5000명으로 8개월 연속 감소했다. 10월에는 소폭 반등했으나, 지난달 다시 증가폭이 축소되며 둔화 추세가 이어졌다.

업종별로는 올해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가 전년 동월 대비 1만7000명 감소하며 16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 감소 폭은 ▲6월 1만명 ▲7월 1만2000명 ▲8월 1만3000명 ▲9월 1만5000명 ▲10월

1만5000명으로 점차 확대되는 추세를 보였다. 하반기 건설업 업황 전망이 밝지 않아 고용보험 가입자 수 감소세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386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만8000명 증가했다. 기타운송장비, 식료품, 자동차,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가입자가 늘어난 반면, 섬유, 의복, 모피 등에서는 감소했다. 특히, 전체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중 외국인을 제외하면 내국인 가입자 수는 8000명 감소하며 지난해 10월부터 14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구직급여(실업급여) 신규신청자는 9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2%(2000명) 증가했다. 건설업, 정보통신업 등을 중심으로 신청자가 늘었다. 구직급여 지급자는 지난해 대비 1만

3000명 증가한 54만3000명으로 집계됐으며, 지급액은 8426억원으로 1.5%(125억원) 증가했다.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E9, H2)의 89.7%가 제조업에 집중돼 있어,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 동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앞으로 외국인력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내국인 고용보험 가입자 감소) 영향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어 "경기 상황의 어려움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피보험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가 증가하고 있어, 개인적으로는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세종=김대환 기자 kdh@metroseoul.co.kr

## 반도체 생명수 '초순수' 국산화 성공

환경부, 실증플랜트 통수식 개최  
"반도체 산업 육성 든든한 토대될 것"

환경부는 9일 경북 구미에 위치한 에스케이(SK)실트론 구미2공장에서 '초순수(Ultra Pure Water) 국산화 실증 플랜트 통수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초순수는 불순물이 거의 없는 상태의 물로, 반도체 표면의 각종 부산물과 오염물질 등을 세척하는 데 사용된다. 반도체 산업뿐만 아니라 의료·바이오, 화학,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첨단 산업 전반에서 필수적인 자원으로 활용된다.

환경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협력해 초순수 생산기술의 국산화를 목

표로 2021년 4월부터 '고순도 공업용수 국산화 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올 12월에 SK실트론에 설치·운영 중인 초순수 실증 플랜트를 통해 설계·시공·운영 기술의 100% 국산화와 핵심 기자재의 70% 국산화를 이뤘다. 이를 통해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국산 초순수 공급에 성공했으며, 해당 플랜트는 하루 최대 1200톤의 초순수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를 자랑한다.

환경부는 이번 성과를 통해 미국과 일본 등 해외 기업이 주도하던 초순수 시장에 국내 기업이 본격적으로 진출할 발판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를 통해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첨단 산업의 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 국내 최대 반도체 웨이퍼 생산 기업인 SK실트론은 국산 기술로 생산된 초순수를 활용해 실리콘카바이드(SiC) 웨이퍼를 제조하고 이를 국내 반도체 기업에 공급하는 것은 물론, 해외로도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

환경부는 이번에 확보한 초순수 기술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후속 연구개발(R&D)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2031년부터는 초순수 플랫폼센터를 구축해 기술 개발과 전문 인력 양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세종=김대환 기자

## 송미령 "그린바이오 산업 활성화 위한 지자체 협력 강조"

농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 협의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일 미래농업을 위해 그린바이오 등의 신산업 지원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이날 오후 경북 포항에서 열린 '2024년 그린바이오산업 발전 협

의회'에 참석해 "그린바이오 창업 및 민간투자 활성화 등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자체와 윈팀으로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린바이오산업은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한 고부가가치 신산업으로, 농업뿐만 아니라 농업을 둘러싼 전후방 산업과 연관돼 있다"고 강조

했다.

농식품부는 발전협의회 본회의에 앞서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포항) 착공식'에 참석하고,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를 추진하는 5개 지자체(전북 익산, 강원 평창, 경북 포항, 경남 진주, 충남 예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코트라 "중 고령화, 바이오 신시장 공략"

7~9일 중국서 '국제의료산업박람회'

정부가 업계가 중국 인구 고령화에 따른 바이오의료 신시장 공략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지난 7일~9일까지 샤허간 중국 창춘에서 열린 '중국(창춘) 국제의료건강산업 박람회'에서 한국관을 운영했다고 9일 밝혔다.

박람회에는 오스템임플란트(치과기자재), 다산제약(고혈압, 고지혈증복합제), 세라젠(의료기기), 한국인삼공사(건강기능식품) 등 16개사가 참가했다. 중국의 인구 고령화로 수요가 급증하는 분야 현지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것이다.

중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중국의 60세 이상 고령인구는 2억9000만 명으로 매년 약 1000만명 씩 증가하며 전 인구의 21.1%를 차지한다. 노인 요양산업 규모는 2023년 약 1조7000억달러로 전년 대비 16.5% 성장했고, 올해 1월 중국 국무원의 실버경제 육성정책

발표 등이 이어지며 관련 시장은 2027년 약 3조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또 웰니스에 대한 인식 제고로 치과, 재활 의료기기, 항노화 등을 위한 미용기술, 건강관리 등 분야도 꾸준한 성장이 예상돼 국내 기업의 진출이 유망한 블루오션으로 떠오를 것으로 기대된다.

치과 의료 분야는 고령 환자 발병률과 의료 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라 2020년 이래 매년 15% 이상씩 성장, 2025년 약 383억달러 규모에 이를 전망이다. 또 중국산 재활 의료기기가 중저가 시장에 주로 집중돼 있어 기능성 물리치료용 재활의료기기에 대한 수입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항노화를 위한 미용 기술 분야도 미백, 피부 재생, 주름 개선 등을 위한 히알루론산 필러와 보톡스 등에 대한 수요도 확대되고 있고, 면역력 강화와 질병 예방 등 건강관리 목적 건강기능 식품에 대한 인기와 수요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 가속화 합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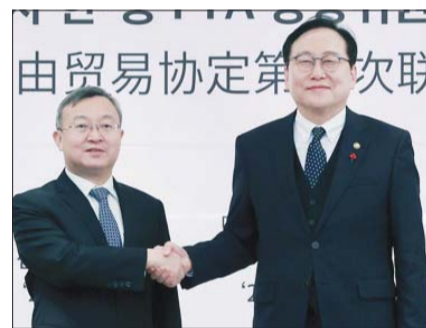
산업부, 대표단과 공동위원회 개최

한중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협상 가속화에 합의했다. 수출통제대화와 공급망 핫라인 등을 통한 공급망 안정화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서울에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과 왕셔우원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협상대표(장관급)를 수석대표로 하는 제6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위원회는 지난 5월 서울에서 열린 한중 최고위 회담과 11월 페루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지난 2015년 12월 발효된 한중 FTA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한중 FTA 서비스투자 가속화와 예측가능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

특히, 양측은 지난 10년 간 한중 FTA가 양국 간 무역과 투자 확대에 크게 기여했고, 앞으로도 상호 호혜적인 경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과 왕셔우원(王受文)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협상대표(장관급)와 9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6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에 참석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산업부

제협력을 증진시켜나가는 중요한 플랫폼으로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향후 양국은 지난 11월 개최된 '제2차(엔칭) 한중 공급망 핫라인 회의', '한국기업 대상 중국수출통제제도 설명회(우시)'를 내년에도 개최해 공급망 안정화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 KDI, 경제 불확실성 확대... 소비·건설 부진

'12월 경제동향' 발표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진단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보고서는 게임과 탄핵 시국 이전 또는 직전 지표를 기초로 작성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9일 발표한 '12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건설업을 중심으로 경기 개선세가 제약되는 가운데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KDI는 내수 회복이 제약되고 있다는 평가를 5개월 연속으로 이어갔다. 이달 또한 "상품소비 부진이 지속되고 서비스 소비도 완만한 증가세에 머무르는 등 소비는 미약하다"며 "건설투자 부진이 지속되면서 내수 회복이 제약되고 있다"고 밝혔다.

10월 전산업생산은 2.3%로 조업일수 확대 등으로 광공업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건설업 부진이 지속되면서 전월에 비하면 0.3%포인트(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KDI는 10월 제조업 재고율(106.8%→112.7%)이 상승하고 평균가동률(73.4%→72.5%)은 하락했지만 상당 부분 일시적 요인에 기인한다고 봤다. 전월 대비로 출하는 4.2% 줄었는데 반도체의 분기 초 출하 감소 경향이 반영됐다.

KDI는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 증가세가 점차 조정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향후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만큼 내수기업과 수출기업 협황 전망이 모두 하락세를 나타낸다"고 전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알뜰폰 + 기가WiFi 인터넷 + UHD TV 결합 혜택

# 통신비 다이어트

지금 받고 있는 혜택에 만족하세요?  
바로 비교해봐도 **70만원** 손해!



LG헬로비전 기가라이트500Mb + UHD뉴베이직 TV + 7기가 모바일 무제한 요금제 결합  
K사 베이직500Mb 인터넷 + 266채널 동급 TV + 5기가 모바일 무제한 요금제 결합  
※인터넷/TV 36개월 약정 기준 ※VAT포함, STB임대료 별도

LG헬로비전 상담문의  
**1855-1094**

# 대구시, 2045년까지 TK신공항 품은 '군위하늘도시' 조성

메디컬센터, 항공고등학교 등 유치 용도 지정 유보된 화이트존 조성 1070만㎡, 인구 14만명 규모 예정



군위 하늘도시 예상도.

대구경북 신공항이 들어서는 군위군을 에어시티로 개발하는 종합 계획안이 나왔다.

대구시는 9일 '군위하늘도시' 청사진을 발표했다. 군위하늘도시 계획은 'Central Hub of Air City'를 비전으로 쾌적한 정주환경, 친환경 청정도시, 편리한 생활 인프라, 탄소중립 선도도시라는 4대 전략에 따라 미래형 스마트 도시로 개발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대구테크노파크와 연계한 첨단산업기술단지 조성, 계명대 동산의료원이 주축이 되는 메디컬센터 건립, 항공산업에 특화된 항공고등학교, 국제학교 유치 등이다. 또 미래 개발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용도 지정이 유보된 화이트존(White Zone)도 별도로 조성한다. 개발사업은 공공주도 도시개발사업 방식으로 대구도시개발공사와 협력해 진행한다. 이에 따라 군위하늘도시는

전체 면적 1070만㎡에 계획인구 14만명 규모로 제1,2첨단산업 등 주변 개발사업과 연계한 25만 군위시대를 이끌 핵심 도시로 조성될 예정이다.

개발 대상 면적은 전체 325만 평 규모로 신공항 활성화와 장래 수요를 감안해 2단계로 나누어 2045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한다.

1조4000억원이 투입되는 1단계 사업은 490만㎡, 약 2만 세대 규모를 갖고 있고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 내년부터 2030년 공항 개항 시기에 맞춰 약 75만㎡, 5000세대의 주거단지를 우선

조성한다. 이후 2034년까지 주거, 상업, 산업, 교육, 의료시설 등 우수한 정주환경을 조성해 신공항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2단계 사업은 580만㎡ 규모로 공항 활성화에 따른 개발수요 증가 등을 감안해 2045년까지 개발한다.

개발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택지개발을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개발이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다양한 개발방식을 제시할 방침이다.

군위하늘도시의 경제적 파급효과

는 생산유발효과 약 1조 7400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약 8000억원, 고용유발효과 약 1만 2700명 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시는 군위하늘도시가 대구경북신공항, 군위읍 시가지, 의성신도시, 군위첨단산업단지 등 주요 지역의 중심부에 위치해 다양한 기능을 효율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갖추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다양한 체육시설이 인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하천인 위천이 도시 중심에 위치하는 등 쾌적한 주변 환경을 갖추고 있고 중앙고속도로와 상주영천고속도로가 인접해 교통 접근성도 뛰어나 국토내륙의 거점도시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세계적인 공항은 그위상에 걸맞은 배후신도시와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국가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며 "TK신공항을 품은 군위하늘도시는 단순히 공항을 지원하는 기능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글로벌 관문 도시로 자리잡을 것이다"고 말했다.

대구=김강석 기자 pressskim@metroseoul.co.kr

## 지역 이모저모

### 고흥군-전남교육청 교육자치협력지구 '맞손'

고흥군은 지난 6일 군청 팔영산홀에서 전라남도교육청과 교육자치협력지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공영민 군수, 김대중 전라남도 교육감, 권형선 고흥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협약서 서명 및 교환식과 함께 지난 4년간의 성과 공유 및 고흥 교육 발전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

교육자치협력지구는 전라남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1:1 대응투자 및 업무협약을 통해 학교 교육 및 마을 교육을 지원하여 지역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 사업이다.

고흥(전남)=양수영 기자

### 고창군 '세계유산 스탬프투어' 성료

고창군과 고창문화관광재단이 공동 기획·운영했던 '유네스코 세계유산 7가지 보물 스탬프투어'가 성황리에 종료됐다.

스탬프투어는 세계유산 7가지 보물과 관련된 관광지(판소리박물관, 고인돌박물관, 전봉준 장군 동상, 농악전수관, 운곡습지, 선운산, 람사르고창갯벌센터)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참여형 이벤트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 운영했다.

온라인 미션 완료자는 20명 추첨을 통해 마그네틱 5종 또는 스노우볼 등을 선물로 받았다. 오프라인 미션 완료자 전원에게는 배지 7종, 우산, 텀블러 에코백 등을 지급했다.

고창(전북)=양수영 기자

## 전남도, 친환경농업직불금 185억 지급 포항시, 지역경제·민생 지키기 '총력'

###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 1.4만곳 지급 전국 총 210억의 52% 규모

전라남도는 2024년 친환경농업직불금 110억 원, 유기·무농약 지속 직불금 75억 원을 확정하고, 직불금 총 185억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은 친환경농업 이행에 따른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액을 농가에 보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저탄소농업 실현을 위해 1999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친환경 인증을 유지하면서 인증기관으로부터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1만 4000여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다. 지급 면적은 약 1만 9000ha로, 110억 원(국비)을 지급한다.

전남도가 지급할 친환경농업직불금은 전국 총 210억 원의 52% 규모이며, 농가당 평균 지급액은 77만 원이다.

지급 면적은 농가당 0.1ha부터 5.0ha까지다. 인증단계별 ha당 지급단계는 논은 35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과수는 70만 원에서 140만 원까지, 채



전라남도는 2024년 친환경농업직불금 110억 원, 유기·무농약 지속 직불금 75억 원을 확정하고, 직불금 총 185억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전남도

소·특작은 65만 원에서 1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유기·무농약 지속직불금 지급 대상은 친환경농업직불금 수령 후 친환경(유기농·무농약) 지속 인증 농지로서 지급 면적은 약 1만 5천ha로, 1만 3천여 농가에 75억 원을 지급한다.

2025년 친환경농업직불금은 정부 예산 319억 원으로 확대 반영되면서 전남은 올해 110억 원 대비 73억이 증액된 183억 원을 확보했다.

내년부터 인상되는 친환경농업직불금(국비) 세부 내용은 논 직불 단가를 ha당 유기는 70만 원에서 95만 원, 무농약은 50만 원에서 75만 원 등으로 인상된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 지역 민생 안정 특별대책 설명철강 등 주력산업 위기 극복

이강덕 포항시장(사진)이 경제가 어렵고 정국이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사회갈등 최소화화 지역사회 안정을 위해 흔들림 없는 시정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9일 시청 브리핑룸을 찾아 연말연시 '지역 민생 안정 특별대책'을 설명하며, 시민·사회 안정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각종 지역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9일부터 부시장을 총괄로 지역안정, 민생경제, 취약계층, 경기활성 대책을 위한 '지역안정 대책반'을 구성해 즉시 운영에 들어갔다.

이 시장은 특히 철강·이차전지 등 주력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경



제와 민생 지키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철강과 이차전지 산업의 회복을 위해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중소기업 정부지원금, 국내 기업 의무할당제, 전기료 인하 등 위기 극복 긴급대책 마련과 함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등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또한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내년에는 소상공인 특별보증지원 2,000억 원 조성, 포항사랑상품권 2,000억 원 규모 발행을 비롯해 필요한 모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공재정의 선제적·공격적 투입으로 경제 마중물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포항(경북)=최지용 기자 asdadx@

## 경주시, 보문관광단지 셔틀버스 무료 운행

오늘부터 내년 4월 10일까지

경주시는 10일부터 내년 4월 10일까지 4개월간 보문관광단지에서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무료로 운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운행은 경주가 스마트 관광 도시로 도약하는 첫걸음으로, 보문관

광단지 내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자율주행차량을 도입할 것이다.

순환노선에 투입되는 자율주행 셔틀버스는 B형 자율주행차량 1대로, ▲경주화백컨벤션센터 ▲힐튼호텔 ▲동궁원 ▲경주월드 등을 포함한 9.4km 순환 구간을 하루 6회 운행한다. 경주(경북)=최지용 기자

## 부산시, '우수 착한가격 업소' 4곳 선정

행복순두부, 남경, 청춘탕수육 등

부산시는 물가안정에 모범이 되는 관내 업소 4곳을 올해 '우수 착한가격 업소'로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착한가격업소는 개인서비스업 중 지역의 타 업소보다 낮은 가격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을 위해 2011년부터 지정해 오고 있다. 부산에는 지난 9월말 기준 총 690곳이 지정돼 있다.

시는 구·군 추천과 현장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우수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했다. 이들 업소는 가격 외에도 위생, 사회봉사 등 여러 항목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선정된 4곳은 ▲행복순두부(동래구) ▲남경(사하구) ▲청춘탕수육(중구) ▲헤어클릭 제이앤드제이(기장군)다.

이들은 각각 순두부 6000원, 짜장면 4000원, 짜장면+탕수육 7000원, 헤어컷트 5000원 등 저렴한 가격으로 시민들에게 식사와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 울산시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 상향

울산시 울주군은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금연구역 흡연행위 과태료를 상향한다고 9일 밝혔다.

법정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 시 과태료는 10만원이며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은 1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자체별로 지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울주군은 조례에 의해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기존 과태료 2만원을 5만원으로 상향했다. 울주(울산)=이도식 기자

## 경남도 우수농특산물 직거래장터 한마당

경남도는 '2024년 경남 우수농특산물 직거래장터 한마당' 행사가 오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롯데몰 진주점 앞에서 열린다고 9일 밝혔다.

도내 13개 시·군 30명의 농업인이 생산한 사과, 배, 단감 등 신선 농산물과 쌀, 연잎밥, 딸기청, 장아찌 등과 같은 가공식품 100여 개 품목을 시중가 대비 10~20% 할인 가격으로 판매한다.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돕기 위해 행사기간 동안 선착순 3400명에게 쌀, 떡국떡, 잡곡 등을 무료로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경남=이도식 기자



# “겨울엔 제철 요리와 함께”... 신메뉴로 연말 특별한 경험 선사

**외식업계, 홈파티·모임 공략**  
 빙스, 풍두·크랜베리 폭립 선보여  
 자연별곡, 재첩국 등 겨울성찬 준비  
 도미노피자, 쌤장 채끝 피자 선보

12월에 접어들면서 가족과 친구 등 소중한 사람들과의 연말을 즐기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이에 외식업계는 겨울철 고객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메뉴와 홈파티에 어울리는 화려한 메뉴를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이며 연말 수요 공략에 나섰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패밀리 레스토랑 업계는 겨울 시즌 신메뉴를 출시하며 연말 모임을 즐기려는 소비자 공략에 나섰다.

빙스는 ‘홀리데이 그리팅스’ 콘셉트로 치즈 풍두와 특별한 폭립 신메뉴를 공개했다. 신메뉴 중 첫 번째인 풍두는 따뜻하게 녹인 그라나파다노 치즈, 에멘탈 치즈 등 세 가지 치즈에 폭립이나 연어구이 등을 곁들여 먹을 수 있다. 함께 출시한 ‘크랜베리 스노잉 폭립’은 기존 빙스의 시그니처 메뉴인 바비큐 폭립에 상큼한 크랜베리, 고소한 그라나파다노 치즈를 더해 맛을 한층 끌어올렸다. 메인 메뉴 외에도 ‘윈터베리 치즈 케이크’ 등 다양한 디저트 메뉴까지 공개해 제대로 된 연말 파티를 즐길 수 있다.

이랜드이츠의 한정식 뷔페 브랜드



도미노피자가 출시한 ‘K-쌤장 채끝 스테이크 피자’를 모델들이 소개하고 있다. /도미노피자

자연별곡은 올겨울 ‘겨울 성찬절’을 콘셉트로 신메뉴를 준비했다. 제철 해산물인 꼬막, 감태, 홍합 등을 활용한 한식과 편백찜, 국물 요리 위주로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주요 메뉴로는 ‘꼬막 감태말이’와 ‘연어 감태말이’, ‘재첩국’, ‘고기국수’ 등이 있다.

배달 피자 브랜드 도미노피자는 홈파티족을 공략한다. 지난 7월 출시한 ‘K-립&치즈 피자’에 이어 새로운 K-시리즈 피자인 ‘K-쌤장 채끝 스테이크 피자’를 출시했다. 메인 소스인 바베큐 소스에 감칠맛 넘치는 쌤장을 넣은 이색적인 피자도 쌤장 맛에 익숙한 한국 소비자는 물론이고 외국인 소비자들도

보다 쉽게 한국의 맛을 접할 수 있어 가족,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는 연말 홈파티에도 제격이다.

특히 메인 토핑으로 올라간 채끝 스테이크와 카망베르 치즈들은 프리미엄 피자다운 압도적인 비주얼과 맛을 자랑한다. 쫄깃한 모짜렐라 치즈로 겹을 감싸고, 달콤하고 부드러운 카망베르 무스로 속을 채운 치즈덤과 소고기 부위 중에서도 식감과 풍미가 모두 뛰어난 고급 부위로 손꼽히는 채끝살이 사용됐다.

카페 업계는 눈과 입을 사로잡는 달콤한 디저트를 선보였다.

투썸플레이스는 자사의 대표 베스트

셀러 케이크인 ‘스트로베리 초콜릿 생크림’ 출시 10주년을 맞아 엔젤 시트 위에 신선한 딸기를 듬뿍 올린 ‘화이트 스 초생’을 시즌한정으로 출시했다. 이번 화이트 스 초생의 특징은 눈 내리는 겨울의 설원을 연상하게 하는 비주얼로, 시트는 새하얀 엔젤시트를, 시트 사이에는 화이트 초코 생크림을 발랐다. 특히 딸기 위에 하얀 슈가 파우더를 뿌려 케이크 위에 눈이 내린 듯한 화려한 비주얼을 구현했다. 화려한 비주얼과 입안 가득 피어나는 달콤한 디저트로 마무리를 원하는 소비자라면 투썸플레이스의 화이트 스 초생을 추천한다.

해태제과 빨라또는 쫄쫄한 젤라또로 만든 크리스마스 한정판 프리미엄 젤라또 케이크를 판매한다. 가장 인기 있는 젤라또 ‘초콜라또’와 ‘프라골라’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제대로 살린 ‘산타의 초코 포레스트’와 ‘하트볼 눈사람’ 케이크가 대표적이다. 산타의 선물 보따리를 형상화해 풍성하고 행복한 크리스마스 감성을 더한다.

업계 관계자는 “불안한 정국에서도 외식업계가 연말 특수를 잡기 위해 신제품을 선보이고 있다”며 “여럿이서 함께 즐기 좋은 메뉴부터 따뜻하게 몸을 덥혀줄 보양식, 달콤한 디저트까지 다양한 신제품이 출시되고 있는 만큼 연말에는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즐기며 시간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CJ제일제당이 용기족 신제품 7종을 선보였다. /CJ제일제당

## CJ제일제당

### ‘죽’ 신제품 7종 선택

용기족에 맞춤형 토핑 별첨

CJ제일제당이 파우치죽·트레이죽에 이어 용기족 신제품 7종을 선보이며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넓힌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된 신제품은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보울(bowl) 형태의 용기에 담았으며, 전복·전복내장·소고기·버섯야채·누룽지닭백숙·통단팥·단호박 7종이다. 특히 각 제품마다 고소한 김과 깨, 감칠맛 파와깨, 풍미가득 견과, 참기름 토핑 등이 별첨돼 있어 맛과 풍미를 극대화시켜 준다.

용기족 제품은 먼저 CJ더마켓을 통해 선보이며, 추후 소비자 반응 등을 살펴 대형마트 등으로 유통 채널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CJ제일제당은 출시를 기념해 31일까지 신제품 7종을 5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신원선 기자

# 롯데백 “미식·예술의 조화, 특별 강좌 열풍”

**문화센터, 연말·신년 강좌 고객몰이**  
 요리부터 공예까지 이색 프로그램

롯데백화점이 연말연시를 맞아 다양한 문화센터 강좌를 선보인다고 9일 밝혔다.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대표적으로 최근 인기 서바이벌 요리 프로그램에 출연해 화제가 된 스타 셰프들의 강좌가 마련됐다.

스타 셰프들의 강좌는 모집 정원의 최대 16배 이상의 고객들이 몰리며 호

응을 얻고 있다는 게 롯데백화점 측 설명이다.

특히 이달 10일 진행되는 ‘파브리 셰프의 연말 홈파티 쿠킹 클래스’에는 30명의 모집 정원의 10배 이상 되는 고객들이 신청했다. 내년 초 선보이는 ‘나폴리 맛피아의 코리안·이탈리안 퀴진 클래스’ 역시 총 50명 모집에 벌써부터 800명이 넘는 고객들이 접수를 마쳤다. 유명 셰프들과 함께하는 연말 파티 준비 강좌도 진행한다. 동양인 최초 국

제요리예술전시회(IKA) 세계요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나성주 롯데호텔 시그니얼 제과기능장의 연말 디저트 클래스’, 이탈리아 2스타 미술랭 레스토랑 출신의 ‘페데리코 스코티 셰프와 크리스마스 파티 음식 만들기’ 등이 대표적이다.

롯데백화점은 새해맞이 이색 강좌도 선보인다. 대표적으로 야외 한옥에서 진행되는 ‘2025년 호작도 달력 만들기’, 새해 다짐을 빛으로 표현해 보는



롯데문화센터 겨울학기 대표 이미지. /롯데백화점

‘한지 무드등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 홈플러스 온라인

### 연말 ‘완구 배송족’

#### 2년 새 50% 증가

크리스마스 시즌에 43% 몰려

홈플러스가 크리스마스 시즌 동안 집에서 완구 선물을 주문하는 ‘완구 배송족’이 2년 새 약 50% 증가했다고 9일 밝혔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완구 구매 고객 수와 매출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23년 12월 기준 구매 고객 수는 2021년 같은 기간보다 약 50% 증가했으며 매출액도 약 16% 늘었다.

또한 같은 기간 월별로 따져보면, 12월 달 매출이 연간 매출의 약 4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크리스마스 시즌이 완구 판매의 핵심 시기임을 보여준다는 게 홈플러스 측 설명이다. 어린이날 직전 달인 4월 매출과 비교하면 최대 6배까지 차이가 난다.

특히 연령대로 살펴보면, 지난해 12월 기준 30대 구매자 수가 가장 많았다. 30대 구매 고객이 5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40대는 39%로 그 뒤를 이었다.

그중에서도 30대 여성 고객들의 구매율이 가장 높았다는 게 홈플러스 측 설명이다. 30대 여성의 고객 1인당 평균 구매 금액은 12월과 4월을 제외한 비시즌 기간에 비해 약 70% 증가했다.

/안재선 기자

## SSG닷컴, 겨울맞이 ‘뷰티 썬세일’ 진행

SSG닷컴이 이달 15일까지 2024년을 결산하는 ‘뷰티 썬세일’을 진행한다 고 9일 밝혔다.

SSG닷컴에 따르면 ‘뷰티 썬세일’에서는 올 한 해 최고의 호응을 얻은 상품, 인기 브랜드 상품 등을 한곳에 모아 ‘어워즈’ 상품으로 선보인다. 대표적으로 ‘에스티로더’, ‘비오렘’, ‘피지오겔’ 등 브랜드 상품을 할인가에 만나볼 수 있다.

아울러, 해당 상품을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사봉’ 홀리데이 세트, SSG머니 등을 증정하는 행사도 진행한다.

매일 오전 9시와 오후 6시에는 한정

된 수량을 특별 할인가로 판매하는 시간을 운영한다. 시간대별로 2가지씩 총 28종의 뷰티 상품을 선보일 계획이라는 게 SSG닷컴 측 설명이다.

SSG닷컴은 특집 라이브 방송도 세 차례 진행한다. 이달 9일 저녁 7시에는 ‘SK-II’, 10일 같은 시간대에 ‘에스트라’를 특별 혜택가에 제공한다. 11일 저녁 8시에는 ‘시슬리’ 인기 상품을 단독 구성으로 선보인다.

이 외에도 행사 기간 15% 쿠폰을 각각 3장씩 지급하며, 7만원 이상 행사카드 결제 시 청구 할인도 최대 8%까지 받아볼 수 있다.

/안재선 기자

## 정관장, 겨울 필수템 ‘데워먹는 홍삼원’

정관장이 건강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데워먹는 홍삼원’을 선보인다고 9일 밝혔다.

‘데워먹는 홍삼원’은 갓 달여낸 홍삼의 맛과 향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프리미엄 한방음료다. 125년 정관장의 노하우를 담은 깊고 진한 홍삼의 풍미에 계피, 대추, 생강, 구기자 등 식물 성분을 엄선해 담은 홍삼원만의 최적화된 배합으로 저칼로리, 저당 트렌드도 충족한다.

티 팟(Tea Pot)을 모티브로 한 ‘데워먹는 홍삼원’ 파우치 포장은 그대로 전 자레인지에 데워도 맛과 영양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편의성까지 갖췄다. 20초만 데우면 손안 가득 따뜻한 온기가 퍼져 쌀

쌀한 겨울에 건강한 기운을 더해준다.

최근 코로나 이후 웰니스에 대한 늘어난 관심으로 건강·기능성 음료 시장이 확대 되고 K-푸드 열풍에 K-음료까지 해외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정관장 ‘홍삼원’도 지난 10월에 출시한 ‘홍삼원 달라이트’를 미국에 론칭했고, 이번 신제품 ‘데워먹는 홍삼원’도 중국에 현지 맞춤형 제품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국내 건강기능식품 1위 기업인 KGC인삼공사는 고품질 원료와 125주년 제조 노하우로 생산한 ‘홍삼정’, ‘에브리타임’ 등 스테디셀러 브랜드를 앞세워 건강기능식품 시장을 이끌고 있다.

/신원선 기자

# ‘K뷰티 강자’ 코스맥스-콜마, 불붙은 건강기능식품 경쟁

**코스맥스 연구·개발·생산 강화**  
**젤리명가 지위 유지 전략 펼쳐**  
**초소형 정제기술로 멀티팩 제품 집중**  
**한국콜마 신소재 부가가치 극대화**  
**제주 천연 자원 통해 제품 차별화**



콜마비엔에이치 식품과학연구소 연구원이 소재, 원료 등을 비롯한 제품 품질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콜마비엔에이치

국내 대표 화장품 제조 기업인 한국콜마와 코스맥스그룹이 올해 화장품 사업에서 연 매출 2조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K뷰티’ 강자로 입지를 다지면서, 건강기능식품 제조 분야에서도 경쟁을 이어나가고 있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코스맥스그룹은 코스맥스바이오와 코스맥스엔비티 2개 회사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연구·개발·생산(ODM)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코스맥스바이오는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다양한 제형의 제품을 생산하며 경쟁력을 높이고, 코스맥스엔비티는 국내뿐 아니라 미국, 호주 등 해외 시장에서 입지를 다진다.

특히 코스맥스바이오는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젤리 명가’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을 펼치고 있다. 코스맥스바이오는 지난 11월 말 총복 제천

공장에 젤리 특화 설비로 구축한 ‘젤리스’를 본격 가동하기 시작했다.

코스맥스바이오에 따르면 젤리스는 5분만에 젤리 냉각이 가능한 특허 시설로, 연간 생산량은 젤리 형태로 된 건강기능식품 1억2000만포에 달한다. 이는 국내 건강기능식품 업계에서 최대 수준이라는 것이 코스맥스바이오 측의 설명이다.

코스맥스바이오는 지난 2010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젤리 제형의 건강기능식품을 선보였다. 이후 코스맥스바이오는 2019년 기준 100억원의 젤리 매출을 올

렸고, 올해는 300억원의 젤리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코스맥스엔비티는 후발주자로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등장했지만 전문 기술을 성장 기반으로 마련해 미래 건강기능식품 시장을 선도한다는 방침이다.

코스맥스엔비티의 초소형 정제 기술 ‘아담’의 경우, 지난 10월 중국 난징에서 열린 세계적인 건강기능식품 원료 박람회 AAES에서 ‘기술 돌파상’을 수상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기도 했다.

아담은 제형 소형화를 구현한 기술

로, 핵심 기능과 무관한 부형제 양은 최대 87%까지 줄이고 제형의 안정성과 기능 성분 함량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특징이다. 코스맥스엔비티는 해당 기술을 활용해 여러 종류의 건기식을 한 번에 섭취하는 멀티팩 제품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이와 함께 코스맥스바이오와 코스맥스엔비티는 올해 3분기 연결기준, 각각 355억원, 858억원의 매출을 냈다. 지난 2023년 동기 대비 코스맥스바이오는 22.4%, 코스맥스엔비티는 5.6% 역성장했다. 이에 대해 코스맥스그룹 측은 소비심리 위축과 해당 시장 경쟁 심화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을 내놨다.

한국콜마의 건강기능식품 ODM(제조개발생산) 기업 콜마비엔에이치도 실적 개선에 나선다.

콜마비엔에이치는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8% 증가한 1474억원, 영업이익은 40.1% 감소한 41억원을 기록했다.

콜마비엔에이치는 강점을 구축해 온 기능성 신소재 개발에 이어 신소재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완제품 사업으로도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 제조에 특화된 기

술력을 활용해 독창적인 제품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에는 제주테크노파크와 함께 ‘제주 천연원료를 활용한 제품 개발 및 사업화’를 목표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콜마비엔에이치는 제주 천연 자원을 도입해 제품 차별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뿐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 등까지 이뤄낼 계획이다.

콜마비엔에이치는 일찍이 지난 2006년 국내 천연기능성 1호 개별인정형 원료 ‘헤모힘’을 개발해 연구 역량, 제조 능력 등을 입증한 바 있다. 헤모힘은 현재 호주, 미국, 태국, 러시아를 포함해 중앙아시아, 남아메리카 등 20여 개 지역에 수출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 건기식 시장은 포화 상태로 많은 기업들이 플레이어로 선전하고 있어, 향후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은 더 커질 것”이라며 “K건기식은 원료의 다양성, 편리성 등으로 국내의 소비자 흥미를 유발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향후 발전시킬 수 있는 잠재 요소가 많다고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 “올리브영 어워즈, K뷰티 대표행사 만들 것”

**CJ올리브영, 137개 상품 선정**  
**글로벌 트렌드 부문도 신설**

CJ올리브영은 10주년을 맞이한 ‘올리브영 어워즈’를 세계인들이 즐기는 K뷰티 대표 행사로서 발전시키겠다고 9일 밝혔다.

올해 어워즈 수상을 위해 올리브영이 집계한 고객 구매 건수는 1억6000만 건에 이른다. 10년 전 수치인 1000만 건과 비교했을 때 16배 이상 커진 규모다. 올리브영은 양질의 데이터를 통해 총 33개 부문에서 137개 상품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리브영은 K컬처 열풍과 함께 글로벌 메가 트렌드로 부상 중인 K뷰티의 인기를 반영해 ‘글로벌 트렌드’ 부문

도 신설했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전세계 150여 국가에서 서비스 중인 올리브영 글로벌몰의 구매 데이터 58만 건을 집계해 19개 상품을 추가 선정했다.

이와 함께 올리브영 어워즈가 10회차를 맞는 동안 올리브영이 시상한 중소인디 브랜드 상품의 누적 수는 1300여 개 수준이다. 이 기간 올리브영은 장차 뷰티&헬스 시장을 주도하게 될 트렌드를 제시해오며 입점 브랜드와 고객 간 접점을 지속 확대해 왔다.

이에 따라 올해 어워즈 행사의 백미인 ‘명예의 전당’ 팝업 전시는 전국 올리브영 매장에서 선보여진다. 서울 강남타운, 흥대타운을 비롯해 광주타운, 대구타운, 대전타운, 서면타운, 제주타운 등 지역 거점 매장, 한옥 매장 경주황

남점 등에서 운영함으로써 고객 접점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해당 매장에서는 2024 올리브영 어워즈 1위 수상 상품과 명예의 전당에 오른 브랜드 관련 현장 체험 행사를 즐길 수 있다.

올리브영은 외국인 고객을 위한 특별 프로모션도 준비했다. 서울 명동타운 등 글로벌 관광특화 매장을 포함한 전국 매장에 별도의 진열 공간을 조성해 올리브영 국내 매장에서 찾아보기 힘든 수출 전용 상품을 소개한다.

글로벌몰을 통해 해외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는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이 기간 글로벌몰에서는 북미, 일본, 유럽 등 해외에서 접속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국 가별 맞춤형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이청하 기자

## LG생활건강 ‘벨먼’, 바디워시 선택 폭 넓혀

내추럴 스파 퍼퓸 에디션 2종 출시

LG생활건강은 고급 스킨케어 브랜드 벨먼에서 ‘내추럴 스파 퍼퓸 에디션’ 바디워시 2종을 새롭게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LG생활건강에 따르면 이번 신제품 2종은 브랜드 대표 향을 재단장한 ‘블랙 로즈’와 추가로 선보여지는 ‘화이트 머스크’ 2가지로 구성됐다.

LG생활건강은 블랙 로즈는 싱그러운 장미와 갓 채집한 블랙커런트 향을 조합해 기존 향보다 1.5배 더 깊어졌다고 설명했다. 또 화이트 머스크 향을 더해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특히 두 제품 모두 이스라엘 사해 소금, 살구 씨, 가문비 나무 등 식물에서 유래한 각질 제거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1회 사용만으로도 묵은 각질을



벨먼 ‘내추럴 스파 퍼퓸 에디션’ 바디워시 2종. /LG생활건강

92.9% 제거 가능하다는 것이 LG생활건강 측의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베르가모트 오일, 스피어민트잎 오일 등 6가지 에센셜 오일 성분까지 갖춰 피부 모 습과 피부 광채도 관리할 수 있다.

클렌징과 각질 제거 기능을 겸비한 벨먼 ‘내추럴 스파’ 제품군은 브랜드 대표 제품으로, 지난 2022년 첫 출시 후 2400만 개 이상 판매됐다. /이청하 기자

## 대상웰라이프 ‘갯시스’ 면역강화·체중관리 젤리로 쉽고 맛있게

대상웰라이프의 장 건강을 위한 브랜드 ‘갯시스’가 면역력 강화와 체중 관리를 돕는 젤리형 건강기능식품 2종을 출시했다.

신제품은 ▲비타면역젤리 엘더베리 맛과 ▲하이바 다이어트젤리 애플사이다비너거맛 2종으로, 각각 면역력 강화와 체중 관리를 목표로 하는 소비자에게 적합한 건강기능식품이다.

두 제품 모두 하루 1포 섭취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으며, 개별 포장으로 간편한 휴대가 가능하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 JW중외제약, 여성 소염진통제 제형 크기 축소

페인엔젤 레이디, 복용 편의성 높여

JW중외제약은 여성용 소염진통제 ‘페인엔젤 레이디’의 제형 크기를 축소해 재출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재단장된 페인엔젤 레이디는 기존 가로 19.7mm, 세로 9.2mm에서 가로 14.8mm, 세로 10.8mm로 줄었다. 총 중량은 1285mg에서 1050mg으로 약 18% 감소했다.

JW중외제약은 생리통 등을 겪으며 1일 2회 이상 다회 복용하는 경우가 많은 여성 복용자들의 특성을 반영해 편의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JW중외제약에 따르면 ‘페인엔젤 레

이디’는 액상형 소염진통제로, 여성 생리통을 포함한 각종 통증을 완화하는 효과를 갖췄다.

주성분인 이부프로펜은 복통, 구토 등 위장장애 부작용과 간독성 위험이 적은 안전한 성분으로 알려졌다. 또 페인엔젤 레이디는 여성 월경 주기에 따라 몸이 붓는 증상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파마브롬’ 성분도 함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품 포장도 가로형 디자인에서 세로형 디자인으로 변경해 차별점을 더했다.

/이청하 기자

## 애경산업 “피부고민, 마스크팩으로 해결”

닷솔루션, 마스크팩 3종 선택

생활뷰티기업 애경산업은 기능성 비건 화장품 브랜드 ‘닷솔루션’에서 다양한 피부 고민에 맞춘 ‘마스크팩’을 출시한다고 9일 밝혔다.

애경산업에 따르면 닷솔루션 마스크팩은 피부 트러블로 인한 울긋불긋한 흔적부터 수분이 부족한 건조함과 당김, 피부 모공 및 탄력 등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바쁜 일상 속에서 1분 만에 빠른 효과를 제공하는 ‘퀵솔루션’ 제품이다.

닷솔루션 마스크팩은 피부 고민별로

선택할 수 있도록 트러블용 ‘에이솔루션 어성초 바하 트러블 마스크’, 수분 보충 및 피부 진정을 위한 ‘씨솔루션 히알루론 시카수딩 마스크’, 모공 탄력용 ‘피솔루션 민트 바쿠치올 모공 마스크’ 등 3종으로 구성됐다.

이들 제품 모두 비건 성분해 젤리 시트가 에센스를 머금고 있어, 피부 밀착력 높은 젤리 시트가 각각의 핵심 성분을 피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해 준다.

또 닷솔루션 마스크팩은 제조 과정에서 동물성 원료를 배제한 비건 처방을 적용해 한국비건인증원의 비건 인증을 획득했다. /이청하 기자



원광디지털대학교  
WONKWANG DIGITAL UNIVERSITY

당신이 꿈꾸는  
원더풀 라이프

# 원광시편 원더시대



원광디지털대학교  
2025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모집안내

1차 모집기간  
2024.12.01.(일) ~ 2025.01.10.(금)

2차 모집기간  
2025.01.22.(수) ~ 2025.02.14.(금)

모집학과

웰빙건강학부 한방건강약선학과, 한방미용예술학과, 요가명상학과, 웰니스문화관광학과

한국문화학부 전통공연예술학과, 한국복식과학학과, 차문화경영학과, 한국어문화학과, 동양학과, 원불교학과, 태권도스포츠재활학과

실용복지학부 사회복지학과, 상담심리학과, 언어치료학과, 경찰학과, 부동산학과, 얼굴경영학과



**신한장학재단, '장학생 홀커밍데이' 개최**

신한장학재단이 재단 설립 20주년을 맞아 '장학생 홀커밍데이'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신한장학재단은 지난 2006년부터 2019년까지 2700여명의 장학생에게 총 380억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가운데)이 전·현 장학생 및 재단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장학재단



**한일시멘트, '에너지 효율 목표 제도' 우수기업 인증**

한일시멘트가 '에너지 효율 목표 제도'(KEEP 30) 우수기업 인증을 받았다. 한일시멘트는 2023년 에너지 원단위 개선율 6.6%를 기록해 S등급을 받았다. 한일시멘트 오해근 전무(오른쪽)가 산업통상자원부 이호연 에너지정책실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일시멘트



**이노그리드,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선정**

이노그리드가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이노그리드는 ▲유연근무제 ▲연차, 반차, 반반차 등의 자유로운 연차 사용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이노패밀리데이(분기별 2회 조기퇴근) ▲사내 캠페인을 통한 일하는 방식 및 문화 개선 등 일과 개인의 생활의 균형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노그리드



**두나무, '두나무 넥스트 스테퍼즈' 성과 공유**

두나무가 지난 6일 서울 중구 명동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취약계층 청년 희망 자금 '두나무 넥스트 스테퍼즈(Dunamu Next Steppers)'의 성과를 발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성과공유회에는 참여 청년들과 경제 멘토, 유관기관 실무자 등 총 100명이 함께 했다. /두나무



**아산나눔재단, '아산 티처프러너' 6기 수료**

아산나눔재단이 지난 7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마루180에서 '아산 티처프러너' 6기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수료식에서 아산 티처프러너 6기는 아산 정주영 현대 창업자의 어록이나 도전정신 등 직접 개발한 기업가정신 커리큘럼을 발표했다. /아산나눔재단

# SK이노, 전국 읍면에 '행복Dream 도서관' 세운다

구성원들 자발적 기금 조성  
전북 고창에 첫 도서관 개관

SK이노베이션이 지리적 여건으로 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농어촌 아이들을 위해 전국 15곳에 도서관을 짓는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8일 전북 고창의 '열린지역아동센터'에서 '행복Dream 도서관'을 개관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지난 9월부터 도서관과 서점이 턱없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행복Dream 도서관 사업을 벌여왔다. SK이노베이션과 세이브더칠드런은 이번 고창 도서관 개관을 시작으로 오는 연말까지 충북 옥천, 경북 예천 등 전국 읍면 소재지 총 15곳에서 아이들을 위한 도서관을



희권 세이브더칠드런 ESG(환경사회지배구조)사업부부장, 엄상훈 SK이노베이션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팀장, 유현주 고창 열린지역아동센터장, 정재승 카이스트 뇌인지과학과 교수(왼쪽부터)가 지난 8일 전북 고창 열린지역아동센터에서 열린 행복드림 도서관 개관식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

연다. 이 도서관에는 그동안 교보문고가 캠페인을 통해 기부받은 어린이 책과 SK이노베이션 임직원이 기부한 도서 등 총 6000여권이 나눠 소장된다. 또 전문 강사의 독서 프로그램

운영, 대형 도서관 체험 활동 등을 통해 아이들이 독서에 흥미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이날 고창 도서관 개소식에는 세이브더칠드런 앰버서더인 정재승 카이스트 뇌인지과학과 교수가 참

여해 특강을 했다.

SK이노베이션은 임직원들이 지난 2017년부터 자발적으로 기본급 1%를 모아 조성한 '행복나눔기금'으로 이번 도서관 사업을 진행했다. 행복나눔기금 누적 모금액은 올 상반기에 200억원을 넘어섰다. 기금은 도서관 사업 외에도 난치병 아동 치료비 지원, 장애인 의수족 지원, 독거노인 결연사업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쓰이고 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조성한 기금에서 2억원을 들여 도서관 사업을 벌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상생, 사회문제 해결, 소외계층을 위한 돌봄 활동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 한화, 취약계층 대상 김장김치 나눔 봉사활동

100여가구에 1500포기 김치 전달

(주)한화가 겨울철을 맞이해 종로구 일대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김장김치를 전달했다.

한화는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소재 무악동 무악동천주교회에서 김장김치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겨울철을 맞이해 종로구 일대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한화 직원 30여명은 각각 김장·포장·배달조에 편성되어 나눔을 실천했다. 1500포기의 김치는 종로구 무악동·교남동



(주)한화 봉사단이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무악동천주교회에서 김장김치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천연동 일대의 취약계층 어르신 100가구에 전달됐다.

김장조에 배치되어 봉사활동에 참여한 한화 전영석 과장은 "집에서도 마지막으로 김장을 해본지가 오

래됐는데, 이번 기회로 동료들과 함께 김장을 하게 되어 즐거웠다"며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이웃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더욱 보람차다"고 소감을 전했다. /양성운 기자 ysw@

## OCI ISO 37001·37301 인증

OCI가 윤리경영과 준법경영 실천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OCI는 지난 5일 한국준법진흥원(KCI)으로부터 국제 표준 부패방지 경영시스템(ISO 37001)과 규범준수 경영시스템(ISO 37301) 인증을 동시에 획득했다고 9일 밝혔다.

OCI는 ISO 37001과 ISO 37301 인증 획득을 위하여 지난 9월 임직원 30여명을 내부심사원으로 선발해 양성 교육을 실시하고 내부 역량을 강화했다.

또한 OCI는 경영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사 리스크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새로 구축했다.

/차현정 기자

## 오비맥주 카스, 종합 격투기 대회 'ZFN' 공식 후원

부스 운영, 참여 이벤트 예정

오비맥주 카스가 종합 격투기 대회 'ZFN(Z-Fight Night)'에 공식 주류 후원사로 참여한다.

ZFN은 세계적인 종합격투기 선수인 '코리안 쉰비' 정찬성과 공연기획사 MCP ECC가 국내 종합격투기 시장의 발전을 위해 기획했다. 올해에 2

회치를 맞이한 대회로, 오는 14일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 7A홀에서 개최된다. 대회는 30분만에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격투기 팬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카스는 브랜드 부스 운영은 물론, 제품 판매, 소비자 참여 이벤트 등을 통해 ZFN팬들과 소통하며 현장의 열기를 함께할 예정이다.

카스 부스에서는 대표 제품 카스

프레스리' 생맥주, 작년 첫 선을 보인 이후 품질 대란을 일으킨 카스 레몬스퀴즈' 그리고 논란코올 음료 버전인 카스 레몬스퀴즈 0.0'을 즐길 수 있다. 여기에 종합 격투기를 테마로 한 리듬게임, 현장에서의 추억을 남길 수 있는 ZFN X CASS 포토월 등 다양한 즐길 거리도 마련해 현장 분위기를 돋울 예정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 인사

- ◆SOOP ◇경영진 선임 △각자대표이사 서수길 정찬용 ◇승진 △CSO 사장 최영우 △COO 전무 이민원
- ◆중앙이코노미뉴스 △산업부 부국장 김국헌
- ◆더피알 △편집인 오승호
- ◆일요주간 ◇부사장 김경훈
- ◆스마트에프엔 △국장(정치·사회대기자) 지원선

## 부음

- ▲성성근씨 별세, 유유옥씨 남편상, 성정남(서울나우병원 분당본원장)·성미숙씨 부친상, 김순담(백석문화대 교수)씨 시부상, 황윤성(마산시립요양병원 재활의학과장)씨 장인상 = 9일 오전 4시,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11일, 02-787-1502
- ▲김재광(예비역 공군대령)씨 별세, 김상란씨 남편상, 김호빈(상계백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김유빈씨 부친상, 예병덕(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교수)·김상진(삼성서울병원 안과 교수)씨 장인상 = 8일 오후 1시57분,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11일, 02-3010-2231

## 귀뚜라미보일러, '대한민국 100대 브랜드' 등극

가정용보일러 브랜드 유일 지정

귀뚜라미보일러가 대한민국 유수의 브랜드와 어깨를 나란히하며 독보적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았다.

귀뚜라미는 브랜드가치 평가회사 브랜드스탁이 발표한 '2024년 대한민국 100대 브랜드'에 자사의 귀뚜라미보일러가 12년 연속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가정용보일러 브랜드 가운데 유일하게 대한민국 100대 브랜드에 이름을 올린 귀뚜라미보일러는 지난해보다 3계단 상승한 종합 순위 48위에 오르며 전체 50위 내에 첫 진입했다.

귀뚜라미보일러는 에너지 자원 절약과 탄소 중립 실천이라는 글로벌 공동 과제에 대응해, 에너지효율과 미세먼지 저감 능력이 검증된 고

품질 친환경보일러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다.

귀뚜라미보일러 관계자는 "전통의 구동장 온돌을 계승한 현대식 온돌 난방이 대한민국 가정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난 반세기 동안 업계 선구자로서 노력한 결과 국내 우수 브랜드와 견줄 수 있는 브랜드 가치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

©Toshio IWAI/ KAISEI-SHA

**바다 100층짜리 집에 이은  
NEW 시리즈 2탄  
기발한 상상력의 이머시브 뮤지컬**

뮤지컬

100

층짜리 집

우와~ 여기엔  
누가 살고 있을까?  
올라가 보자!



2025.01.10(금) ~ 03.03(월)

성균관대학교 새천년홀 대극장

# 밀턴 프리드먼과 평생교육 바우처



임경수 교수의 라이프롱 디자인

밀턴 프리드먼(1912~2006)은 20세기 경제학의 아이콘이다. 신자유주의를 대표하는 학자로서 마치 경제학의 나침반처럼 자유시장의 길을 밝혔으며, 정부 개입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려 했다.

1976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면서 '경제학자는 예측자가 아니라 설명자다'라는 수상 소감을 남겼다. 그의 '설명자(explainer)'는 복잡한 경제적 상호작용을 해석하고,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원리와 메커니즘을 설명함으로써 사람들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걸 뜻했다.

밀턴 프리드먼이 그의 아내 로즈 프리드먼과 함께 쓴 <선택할 자유>는 자유시장의 가능성을 한 쪽의 서사처럼 펼쳐내며, 개인의 선택이 억압에서 번영으로 가는 열쇠임을 설화한 경제 자유주의의 걸작이다. 개인은 자신의 삶에 대해 가장 적절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자유시장은 이러한 선택권을 보장하는 가장 효

율적인 시스템이라는 메시지다. 교육도 선택할 자유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교육은 가장 소중한 투자이자, 선택의 자유를 통해 개인과 사회의 번영을 이루는 기반이었다. '학교교육은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교육의 달레마를 다룬 대목에서다.

초·중등교육은 대부분 정부가 직접 제공하며, 지역에 따라 차별적인 질과 접근성을 가진다. 프리드먼 부부는 이러한 공교육 시스템이 비효율적이고, 선택권을 제한하며, 교육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한다.

고등교육은 지나치게 고비용 구조로 운영되며, 정부의 지원은 대학 간의 경쟁을 악화시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저해한다고 분석한다. 고등교육 지원이 부유층 가정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며, 저소득층은 여전히 고등교육 접근이 어려운 불평등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프리드먼은 초·중등교육에 선택의 날개를 달아줄 바우처 제도를, 고등교육에는 책임과 자율의 씨앗을 심을 장기 학자금 대출과 민간 재원 활용을 제안하며 교육 혁신의 비전을 제시한다.

이 가운데 바우처 제도는 정부가 학부모에게 이용권 형태의 보조금을 제공하

고, 학부모는 이용권을 사용해 원하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학교 간 경쟁을 촉진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학부모와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정부는 교육에 자금을 지원하지만, 학교 운영에는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

밀턴 프리드먼의 교육 바우처는 개인의 학습 여정을 지원하는 기틀이 되어, 한국의 평생교육 바우처로 이어졌다. 40년을 훌쩍 지난 2021년, 평생교육법에 평생교육이용권으로 명시되며 생애 전반에 걸친 학습의 권리를 제도화한 열매로 결실을 맺었다.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로 돌아가 보면 평생교육 바우처는 민주사회의 토대를 지키기 위한 약속이다. "대부분의 시민들이 일정 수준의 교양과 지식을 갖추지 않고는 안정된 민주사회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프리드먼의 메시지를 잊지 않으려는 우리의 다짐인 것이다.

이 제도는 선택의 자유와 배움의 기회를 통해 개인과 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민주주의의 불씨를 지키고자 하는 현대적 구현인 것이다.

/건국대학교 글로벌캠퍼스 교수·성인학습지원센터장

## 책임을 피하지 않고 혼란을 막겠습니다?



기지수첩 박태홍 (정치경제부)

'책임을 피하지 않고 혼란을 막겠습니다.' 9일 아침 출근 지하철을 타기 위해 집 앞 큰 사거리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 마주친 흰 바탕에 현수막엔 검은색 굵은 글씨로 짧은 문구가 적혀있다.

이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을 충격과 분노에 휩싸이게 한 윤석열 대통령이 소속한 국민의힘이란 정당이 내건 현수막이다.

해당 현수막은 국민의힘 정당을 나타내는 로고도, 국민의힘을 나타내는 빨간색 글씨도 없다. 어떤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는 것인지도, 어떻게 혼란을 막겠다는 것인지도 알 수 없다. 적어도 공당이라면, 윤

대통령이 위험적이고 위협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의힘의 일터인 국회에 계엄군이 진입해 동료 당직자와 시민을 위협했다는 사실에 대한 사과가 먼저이지 않은가.

현수막 내용만 봤을 때는 국민의힘이 어떠한 사고나 실책으로 인해 책임질 일이 있다는 것과, 이로 인한 혼란이 이미 발생했다는 사실만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혼란스럽다.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표결에서 부결하기로 당론으로 정하고 실제 표결 때 본회의장을 빠져나가 투표를 아예 성립조차 못하게 했다. 탄핵 표결 당론을 부결로 정한 이유는 그들이 겪었던 '탄핵 트라우마' 때문이란 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로당이 분열하고 실제로 거의 망했던 경험이 그들을 본회의장 밖으로 이끌었다고 한다.

과연 그런가. 이미 윤석열 정권 아래에

서 그들이 여당으로서 누려왔던 지위를 내려놓지 못하고 차기 대선에서 도저히 정권 재창출을 할 가능성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지금에 와서 이재명 정권 탄생에 기여할 수 없다고 항변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그렇다면 108명의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위해 대통령과 소통하고 대통령의 막가파식 계획을 견제하지 못했다.

탄핵 표결 불성립 다음날인 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자신들이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누가 이들에게 그럴 권한을 줬나. 윤 대통령은 보란듯이 인사권을 행하고 있다. 이들이 의원총회를 그렇게 많이 여는 것은 '계엄 선포에 대한 책임을 피하고 당내의 혼란을 막겠다'는 이유일 것으로 보인다.

/pth7285@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12월 10일 (음 11월 10일) http://www.saju4000.com

**취** 36년생 어려운 일을 주변 도움으로 해결. 48년생 새로운 기회가 오니 최선을 다해야. 60년생 피로를 느끼면 건강검진을 받아보라. 72년생 저축으로 무리 없이 집 매수할 기회를 잡게 된다. 84년생 개나리를 보고도 봄을 못 느끼는구나.

**소** 37년생 상대에게 배려를 바라지 않아도 보답으로 돌아온다. 49년생 울적하지만 음주는 주의하자. 61년생 마음이 뻥 돌리는 시원한 하루. 73년생 변화가 있는 날이니 새로운 시작. 85년생 지난 일은 접고 현실에 만족해야 마음이 편안하다.

**호랑이** 38년생 오늘 걸어야 내일 뛰지 않으니 쉬지 말고 전진. 50년생 주변을 책망 말고 서류를 잘 살펴라. 62년생 사람 만나는 것이 보장된다. 74년생 계획이 없던 지출로 경제적 곤란을 겪으니 허세는 주의. 86년생 꿀을 얻으려면 벌을 키워야.

**토끼** 39년생 죽은 나무에 이제는 물을 주지 마라. 51년생 태양은 항상 그 자리에 있다. 63년생 뜻만 세우고 노력은 하지 않는다. 75년생 능력 이상의 일을 무사히 처리. 87년생 길거리 다닐 때 핸드폰을 보다가 사고 날까 걱정이 드는데.

**염** 40년생 재물로 인한 갈등이 생겨도 해결된다. 52년생 예의 바른 행동이 나를 높인다. 64년생 남이 차린 밥상은 고맙게 받아라. 76년생 여행하러니 떠나기도 머무르기도 어려운 하루. 88년생 남의 도움을 받게 되나 지출도 많이 발생.

**뱀** 41년생 진로수정은 많은 정보를 수집한 후에 해도 늦지 않다. 53년생 공들인 탐은 심사리 무너지지 않는다. 65년생 남비 요소를 줄이고 긴축재정. 77년생 고통과 실패는 성공의 밑거름이 된다. 89년생 사람과의 의견 차이로 손해가 발생.

**말** 42년생 가족과도 금전거래는 신중히. 54년생 남동쪽으로 역마의 운이 있으니 여행을 떠나 보자. 66년생 시작부터 후지부지될 수 있으니 각오를 단단히. 78년생 공연한 논쟁은 비효율적 소모이다. 90년생 운이 상승하니 용기를 내어 일을 추진.

**양** 43년생 때가 왔으니 힘껏 전진하라. 55년생 발전이 느려 답답하나 오늘은 현상 유지가 최선. 67년생 주변의 무관심이 오히려 감사. 79년생 새 인연으로 새로운 영업거래가 성사된다. 91년생 스스로 겸손하니 말하지 않아도 직장에서 도와준다.

**원숭이** 44년생 일의 결과가 좋아서 명예를 드높이는 날. 56년생 소금장사 나가는데 비가 내리는 격이다. 68년생 날개 없이 하늘을 나는 기분. 80년생 지지를 받고자 하면 논쟁을 만들지 말도록. 92년생 사랑이 찾아오니 가족에게도 좋은 일이 생긴다.

**닭** 45년생 마음은 별이라도 딸 것 같으나 자중해야 할 때. 57년생 후배가 길을 터주니 감사. 69년생 잃을 게 없다면 두려울 것도 없다. 81년생 꽃 피고 새가 울어대니 어떤 일이나 시작해도 좋을 것. 93년생 추위가 오기 시작하니 건강을 조심.

**개** 46년생 평소 쌓아둔 실력으로 좋은 결과를 보게 된다. 58년생 노란색이 오늘 행운을 준다. 70년생 인색한 고집으로 스스로 힘들다. 82년생 꾸준히 일하다 보면 기쁨은 따라오게 마련. 94년생 실비보험은 필수이니 아직 안 들었다면 들어야 할 것.

**돼지** 47년생 우물이 곁에 있어도 두레박이 없으니 허탕. 59년생 좋은 결과는 청정한 선택에서 비롯됨을 명심. 71년생 헛된 희망을 품지 마라. 83년생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이라면 방법이 보인다. 95년생 새 생애나 행동에 대해 뒤돌아보는 시간.



## 김상회의四季 과거시험과 수능

2025년도 대학입시를 위한 수능시험이 지난 11월 7일에 치러졌다. 한국의 위상이 올라가서인지 해외 뛰어난 신문에서도 우리나라의 수능시험에 대한 단상들이 실렸다. 대학입시의 첨경인 수능시험에 대하여 "대학입시 때문에 한국이 멈춰 섰다."라는 파이낸셜 타임스의 기사나 "증시거래량 보류시킨 65만 한국인들의 대입 시험"이라는 블룸버그통신의 글귀까지 보인다. 한국의 교육열은 영미권 등 해외 국가에서는 이름이 높다. 이는 고려나 조선 시대로부터 우리 민족에게 유전자처럼 내려오는 문(文)을 숭상하는 전통에서도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명문대학에 입학해야 공직에서의 출세나 우수 기업에의 취업은 물론 사회적으로 높은 연봉과 미래가 보장되는 등용문에의 시작이기도 한 것이니 목숨 걸고 높은 점수를 얻고자 하는 바람은 부모나 학생 모두의 현실적인 열망이 아닐 수가 없다. 조선 시대 때의 문과 과거시험에 있어 과거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양반 이상이어야 했다. 가문의 영광을 걸고 응시를 하는 과거생들의 부담은 어찌보면 지금의 수능생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다. 어쨌든 수능 입시생이 있는 가정은 최소한 1, 2년간은 온 가족이 살얼음판에 비견될 긴장 상태 속에 지내게 된다. 이 또한 단 하루 수능 입시일 제도를 가진 우리나라 가정들의 숙명 아닌 숙명이다. 시험으로 단칼에 가능하려 하기보다는 보다 합리적이고 공감될 수 있는 수험제도의 마련을 위해 이런저런 보완조치를 마련해오고는 있으나 길은 멀어 보인다. 사주학에서 공부에 특징이 있는 신살은 문창성(文昌星)이다. 이 신살이 있는 친구들은 상대적으로 녹봉과 작위를 받을 기운을 타고났으니 시험과 관련하여는 매우 유리하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니드의 알고리즘을 증가시켰다  
http://www.argo9.com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 에 1부터 9의 숫자가 각각 순회색 9X9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스도쿠3650**

**결합형스도쿠**

**칼라스도쿠110**

**확인도서**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569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150111	2017년3월09일 제1673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택시 인센티브, 막차버스 증차 서울시, 연말 안전귀가 돕는다

12월간 택시·버스 공급 확대계획  
수요 많은 4곳에 택시승차대 설치  
인센티브 지급 등 심야택시 공급  
올빼미버스 공급, 버스 막차 연장



임시승차대 설치



택시 유도

각종 행사·모임 등으로 야간 이동이 늘어나는 연말, 서울시가 늦은 시각 귀가하는 시민 이동 편의를 돕기 위해 교통 대책을 가동한다.

서울시는 12월 한 달 동안 시민들의 심야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연말 택시·버스 공급 확대계획을 마련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시는 택시 업계·플랫폼사와 협업해 심야시간대 택시 1000대를 추가 공급한다. 우선 택시업계와 함께 강남·종로 등 심야 승차수요가 많은 4개 지역에 임시 택시승차대를 설치하고, 택시와 승객을 일대일 매칭해 줘 질서 있는 승차를 유도키로 했다. 임시 택시승차대 운영지역 4개소는 ▲강남역 웨이크웨이 ▲CGV 앞 ▲종로 젊음의 거리 ▲홍대입구역 9번 출구 등이다.

개인택시업계는 택시 수요가 집중되

는 목, 금요일에 심야 운행을 독려하고 법인택시업계에서는 근무조 편성 시 야간 근무조에 우선 배치하는 등 심야 택시 공급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임시 택시승차대는 택시 수요가 급증하는 금요일에 집중 운영된다.

택시 플랫폼사에서는 심야 운행 독려, 인센티브 지급 등을 통해 공급 확대에 나설 예정이다. 우버 택시, 온다 택시, 타다 택시, 아이엠택시 등이 참여키로 했다.

‘우버’는 피크시간대 운행 독려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온다’는 오후 5시부터 익일 새벽 1시 승객 호출 시 차량 지정배차 및 기사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타다’는 호출 많은 지역을 실시간으로 안내해 수요-공급 불균형 해소에 나서고, ‘아이엠택시’는 심야 운행 독려 및 호출 밀집지역으로 차량 이동을 신속히 유도할 예정이다.

연말 심야시간대 시민이 집중되는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버스 공급도 늘린다. 시는 16일부터 31일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서울 시내 11개 주요 지점의 버스 막차시간을 새벽 1시까지 연장 운행한다. 단, 공휴일은 제외다.

심야전용 시내버스 ‘올빼미버스’ 운행도 늘린다. 17일부터 31일까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올빼미버스 28대를 증차해 총 167대가 운행된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 교육부, 학교 안전사고 예방에 AI 도입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 발표  
유아~대학 안전사고 데이터 구축

교육부가 내년 1월부터 인공지능(AI)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교별 맞춤형 안전 대책을 마련하는 관리 체계를 도입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아 내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을 9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번 계획에 따라, 과거 발생한 사고 통계, 학교급, 학교 유형 및 규모 등 각종 안전 관련 데이터를 비교 분석하는 ‘AI 기반 학교안전 예측사고 모델’을 도입하고, 학교안전업무 통합 플랫폼인 ‘학교안전지원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 내년 1월 개통한다.

학교는 학교안전지원시스템에 접속해 ‘발생가능성이 높은 사고 유형’과 ‘예측사고별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 방안’을 제안받아 이를 학교 교육계획 수립 단계부터 반영해 체계적으로 안전관리를 추진할 수 있다.

또한 ‘학생안전 자가진단’을 통해 학생 개인별 안전역량을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맞춤형 안전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학교안전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속한 재난 대비·대응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집중호우·폭설 등 자연 재난이 발생하기 전 학교는 ‘재난 예측 정보’를 안내받아 사전에 신속하게 대비할 수 있고, 피해 상황을 학교와 교육청, 교육부가 실시간으로 공유해 초기 현장 대응을 강화할 수 있다.

교육부는 대학 안전사고 관련 데이터도 구축해 유아부터 대학까지 전 학교급에 대한 안전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데이터의 정책 활용성을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4차 계획부터는 실제 복합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훈련 자료를 새롭게 개발·보급된다. 예컨대 지진 발생 시 화재와 붕괴가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이나, 집중호우 시 침수와 침하가 동반하는 상황에 대응하도록 돕는 내용이다. /이현진 기자

# 경기도, 지역복지사업 평가 ‘최우수상’

지역사회보장 계획, 사회서비스 운영  
2개 분야서 선정... 복지부 장관 표창

경기도가 보건복지부 주관 2024년 지역복지사업 평가 결과 ‘지역사회보장 계획 평가’ 분야 최우수, ‘사회서비스원 운영지원’ 분야 우수 등 2개 분야에서 우수 광역단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지역복지사업 평가’는 전국 지방정부의 지역복지사업 중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지자체를 격려하기 위한 보건복지부 평가다.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 분야는 4년 주기의 중장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부터 시행 결과까지 과정이 우수한 지방정부를 선발하는데 경기도는 최우수 광역자치

단체로 선정됐으며, 2020년부터 5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수상을 하게 됐다.

도는 맞춤형 맞춤 지원으로 ‘경기도 형간급복지대상 확대’, ‘긴급복지 핫라인’ 운영 등 복지사각지대 적극 발굴 및 ‘360° 돌봄’, ‘노인상담사업’ 운영 등 지역사회 돌봄 지원체계 강화, 청년의 미래 준비를 위한 기회 지원 등 특색 있는 사회보장 정책이 많은 관심을 받았다.

‘사회서비스원 운영지원’ 분야는 사회서비스원 활성화를 위한 정책기반 구축과 ‘누구나 돌봄’, ‘AI노인말벗서비스’ 등 혁신사업 지원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지역 주민들에게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 지원한 실적 등을 높이 평가했다.

/경기=유진재 기자 yujin@

# 서울시, 53만가구 노후 급수관 교체 지원

2007년부터 2160억 투입... 94% 완료  
노후 주택·아파트, 수질·수압 개선

서울시는 지난 2007년부터 2024년까지 약 2160억원을 투입해 노후 급수관 교체 대상에 해당하는 서울시내 56만 5000가구의 94%인 약 53만 가구에 지원을 완료했다고 9일 밝혔다.

올해는 아파트, 다가구주택 등 1만 3000세대의 노후 급수관 교체를 위해 약 78억원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가 노후 급수관 교체 공사비를 지원한 아파트는 송파구 올림픽웨이 아파트 2069세대, 동대문구 동답

한신아파트 600세대, 은평구 미성아파트 376세대 등 총 3000여 세대이며, 약 17억원을 지원했다.

시는 연말까지 마포구 성산시영아파트 1120세대, 노원구 상계주공6단지아파트 2646세대, 송파구 장미 1,2차아파트 3402세대 등 총 7168세대의 노후 급수관 교체에 약 39억여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는 올해 총 2800가구에 수도꼭지 필터와 노후 급수관 세척 비용 총 2억7000만원을 지원했다. 이는 재건축·재개발 추진 등 불가피한 사유로 노후 급수관 교체 공사가 어려운 이

들을 위한 것이다.

수도관 종합 서비스를 신청해 지원받은 가구들을 대상으로 지원 전·후에 아리수 음용률 설문 조사 결과, 교체 전 음용률보다 약 15% 많은 40%로 주택에서의 음용률이 제고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지원으로 노후 급수관 교체를 완료한 구로구의 30년 이상 된 아파트 주민대표는 “오래된 급수 설비를 교체하니 수질은 물론 수압도 좋아져서 주민들이 매우 만족하고 있다”라며 “수억 원의 공사 비용이 부담스러웠었는데, 시 지원으로 추진을 하게 돼 속이 시원하다”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 서울교육감 선발 후기고 지원자 7.2%↓

(전년비)

학령인구 감소 영향

서울 지역 2025학년도 교육감 선발 후기고등학교(일반고)의 지원자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지난해보다 7.2% 줄었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모집한 2025학년도

서울시교육감 선발 후기고등학교 신입생 원서접수 현황을 9일 발표했다.

배정 대상학교는 전년 대비 1교 증가한 총 210교이다. 이화여자대학교사범대학부속이화급고등학교(이대부고)가 자율형사립고에서 일반고로 전환되면서 전년보다 1곳 늘었다.

지원자는 전년 대비 4133명(7.2%) 감

소한 총 5만3484명이다. 남자 2만7692명, 여자 2만5792명이다.

지원자 중국제고·외고, 자사고 중복지원자는 전년 대비 597명(5.4%p) 감소한 1만509명이다. 중복지원자 중 불합격자는 교육감 선발 후기고 전형 대상에 포함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전형을 거쳐 오는 1월 7일 합격자를 발표하고, 같은 달 31일 배정 학교를 발표한다.

/이현진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7:36 | 해질 / 17:14

12월 10일 (화)  
음력 : 11월 10일

수도권 날씨  
-1 ~ 8°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지역별 날씨: 연천 -5/7, 동두천 -4/7, 가평 -5/7, 양평 -4/7, 용인 -1/7, 평택 -3/7, 파주 -6/7, 인천 0/7, 수원 -1/7, 서울 -1/8, 백령도 4/7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美 트럼프 국무부 2인자에 크리스토퍼 랜도... 前 멕시코 대사  
▲美 포스트비상계엄 청구서... “5100만韓 국민이 할부로 치를 것” /사진 뉴시스

▲美 국방 “우크라이나에 1조4000억원 추가 지원”  
▲EU 집행위, EU 7년간 방위비 현재의 10배 증액 제안



▲中 11월 외환보유 전월대비 48억달러 증가... “금융자산 올라”  
▲조지아 반EU정책 항의시위 11일째 “취재기자들 무차별 폭행” 항의 /사진 뉴시스



외식업계 제철 신메뉴로 특별한 연말을 너



Life

코스맥스, 콜마 건강기능식품 경쟁 점화 L2



# 자립준비청년 돕고, 음식 나누고... '더 달콤한 내일' 향해

## 살맛나는 세상 이야기 ESG 경영시대

### 돌코리아

돌(Dole)코리아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건강(H ealth)하고 행복(Happiness)하며 조화로운 (Harmony) 내일을 만들겠다는 비전 '스위트 투모로우(Sweet Tomorrow)'를 중심으로 E 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관련 교육 및 영양 격차 해소를 위한 활동을 활발히 전개 중이다. 임직원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자체 사회공헌 캠페인부터 건강, 교육과 관련한 지역 사회 상생 활동, 지속 가능한 목표 수립까지 다 방면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 ◆배움에 차별을 두지 않는 세상

돌코리아는 '모든 사람은 누구나 공평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믿으며, 교육 격차 해소 및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3년부터 필리핀 민다나오 섬에 위치한 돌(Dole)의 비영리 재단인 카실락재단(Kasilak Foundation)과 연계해 'Adopt-a-school'이라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바나나 농장 주변의 초등학교 중 열악한 교육환경을 지닌 학교를 일정한 기준에 의해 선발하여 수업에 필요한 교재, 과학 실습도구, 교육용 TV 등을 전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에 개수대를 설치하여 학생들이 깨끗이 손을 씻을 수 있는 위생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47개의 초등학교, 3306명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힘썼다.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꿈나무 학생들을 위한 지원 사업도 꾸준히 진행 중이다. 2015년부터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에 'Sunshine For All' 장학 기금을 매년 전달해왔다. 특히 아동양육시설(보육원)로부터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어 홀로 서기에 나서는 청소년(자립준비 청소년)을 지원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

누적 기부금은 약 4억4000만원에 달하며 학생들이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학비, 생활비, 역량개발비 등 자립을 위한 장학 기금으로 사용됐다. 현재까지 총 195명의 학생들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총 18명의 자립준비청년과 4명의 차상위계층 대학생에게 도움이 손길을 건넸다.

#### ◆지역사회에 온기 전파하는 돌코리아 나눔 활동

돌코리아는 사업장이 위치한 서울, 평택 등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상생과 나눔의 가치를 실천해 오고 있다. 청과 기부부터 장



1 지난 6월 11일 서울 명동 서울대교구청 내 바보의나눔 사무국에서 열린 'Sunshine For All' 장학기금 전달식에서 재단법인 바보의나눔 이사장 구요비 주교(오른쪽)가 돌코리아 류미선 이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2·3 돌(Dole)코리아는 돌 키즈 쿠키 클래스를 매달 2곳에서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어린이들에게 재미있는 놀이 및 요리 활동을 통해 올바른 식습관을 일깨워 주기 위함이다. 4 지난 6월 1일 진행된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제14회 장애이해퀴즈쇼 : 골든벨을 울려라' 현장. /돌코리아

### 건강·행복·조화 중심 ESG 경영 박차

### 필리핀 바나나농장 주변 교육환경 개선 꿈나무 지원 '바보의 나눔' 장학금 전달 평택지역 아동보호기관에 지원금 후원

### 연간 약 10억 규모 푸드뱅크 후원 지속 203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 위해 노력

에 및 요보호 아동에 대한 체험 활동 후원까지 다방면으로 온정을 전하는 중이다.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에는 2007년부터 연간 약 3000만원 규모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 6월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의 '제14회 장애이해퀴즈쇼 : 골든벨을 울려라' 행사에서 돌코리아 임직원들이 자원 봉사자로 직접 나서 참가자들이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는 데 동참했다.

돌코리아는 18년간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132개의 연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약 5억6000만원에 달하는 기부

금을 꾸준히 전달해오고 있으며 장애인이 건강권과 행복권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지원하고 있다.

돌코리아는 영양 격차 해소에도 힘쓰고 있다. 기부금을 전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자사 제품을 기부하는 형태로도 나눔을 이어가고 있다.

경기도 평택에서는 지역 내 아동들의 건강과 성장을 지원하는 활동을 병행 중이다. 6세 이하의 요보호 아동을 보호 및 양육하는 기관인 '아곱의 집'에 매달 자사 바나나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신체 발달,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주는 '소꿉퍼포먼스' 및 '생태문화여가특별 프로그램' 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지원금을 지속적으로 후원한다.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장애 영유아 복지시설 '아이들의 집'과도 2008년부터 연을 맺어 기부를 지속 중이다. 아동들의 정신적인 건강과 신체적인 기능의 회복을 도모하는 '감각통합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영양가 높은 자사 제품도 정기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이밖에도 2007년부터 전국 각 지역의 푸드뱅크와 협력해 소외 이웃에게 자사 제품

을 꾸준히 기부 중이다. 연간 약 10억원의 규모로 푸드뱅크 후원을 지속하고 있다.

#### ◆미래 세대를 먼저 생각하는 약속

돌코리아는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도약하고자 판매자, 구매자, 그리고 지역 사회 즉, 모든 이해관계자를 최우선으로 공유 가치를 만들겠다는 '돌 프로모시(Dole promise)'를 기반으로 사람과 지구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먼저, 소비자에게 건강한 제품을 제공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2025년까지 모든 제품에 정제 설탕을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2025년까지 과일 공급 과정에서 생기는 과일 손실, 화석연료 기반의 플라스틱 포장을 모두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30년까지는 기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순 배출량을 지속적으로 줄이고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밖에도 농부, 지역사회, 직원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공평한 기회와 생활 임금, 안전과 영양 보장을 제공하기 위해서도 힘을 예정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한강, 내일 노벨문학상 메달 건다...스웨덴 국왕 수여 /사진 뉴시스  
▲서울 발달장애인·전문연주자 함께 하는 오케스트라 창단

▲독일 '명문' 뮌헨,故 베켄바워 등번호 5번 영구 결번  
▲한국 '장 담그기' 등 유네스코 무형유산 66건 신규 등재



▲소토, MLB 역대 FA 최고액...15년 1조1000억원 메츠와 계약  
▲'오승환은 묶는다'...보호선수 명단 구성에 고심하는 삼성 /사진 뉴시스